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입니다.》

세계현대력사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력사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세계와 력사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4학년 세계력사에서는 우선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와 아시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로동운동, 공산주의운동, 반파쑈투쟁 등 혁명운동이 새롭게 장성한데 대하여 배우게 된다.

또한 여러 제국주의나라들에서 파쑈정권이 수립되여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과 대외침략을 더욱 강화한데 대해서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세계인민들의 반파쑈투쟁에 의하여 파시즘세력이 멸망한데 대하여 배우게 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후 자주성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여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신흥세력과 쁠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반제자주력량이 비상히 강화됨으로써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가 더욱 격화된데 대하여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세계력사학습을 통하여 우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혁명과 반제자주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또한 자주성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조선력사와 함께 세계력사도 잘 알고 자신들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미래의 역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제1장.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의 장성

제1절. 사회주의10월혁명

1. 레닌의 4월테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합니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자기 손에 국가정권을 틀어쥐여야 한다.

로씨야에서는 1917년 2월혁명에 의하여 짜리전제제도가 무너졌다.

2월혁명후 로씨야에는 2중정권이 수립되였다.

로동자, 병사들은 레닌이 창건한 혁명적당—볼쉐비크당의 령도밑에 쏘베트를 조직하였다. 반면에 부르죠아지들은 기회주의자들인 멘쉐비크와 에쎄르도당의 지지밑에 부르죠아림시정부를 조직하였다.

림시정부는 제국주의전쟁을 계속하였으며 농민들에 대한 토지분배, 8시간로동제와 같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인 1917년 4월초 망명지로부터 뻬뜨로그라드로 돌아온 레닌은 볼쉐비크들의 집회에서 력사적인《4월테제》를 발표하였다.

레닌은 《4월테제》에서 당시의 로씨야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르죠아림시정부를 뒤집어엎고 쏘베트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라는 투쟁구호가 나오게 되였다.

레닌의 《4월테제》가 나온 후 혁명투쟁은 급속히 앙양되였다.

1917년 7월 수도 뻬뜨로그라드에서는 제국주의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 넘길것을 요구하는 50만명 군중의 반정부시위가 진행되였다.

림시정부는 장교들과 사관학교 학생들을 내몰아 평화적시위자들에게 총탄을 퍼부었다.

뻬뜨로그라드의 거리는 로동자들과 병사들의 피로 적셔졌다.

림시정부 부르죠아지들은 볼쉐비크당청사를 습격파괴하고 볼쉐비크신문 《이스크라》를 폐간시켰으며 혁명적인 로동자, 병사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학살하였다. 볼쉐비크당은 지하로 들어가고 레닌은 다시 망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 사회주의10월혁명이전의 레닌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은 1870년 4월 22일 씸비르스크(오늘의 울리야놉스크)에서 태여났다. 아버지는 씸비르스크주의 소학교 교장이였고 어머니는 의사의 딸로서 교원의 자격을 받았다. 레닌의 큰형 알렉싼드르는 짜리암살사건에 가담한 리유로 사형당하였다. 그후 레닌은 큰형과 같은 테로의 방법으로는 짜리전제제도를 뒤집어엎을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는 까잔종합대학 법학부에서 공부할 때부터 혁명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러한 리유로 하여 1887년 12월 대학에서 출학당하게 된 후부터는 직업적인 혁명가로 되여 우선 맑스주의를 연구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그후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뻬뜨로그라드로 옮기고 여기에서 혁명가들을 묶어세우면서 1895년에는 《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이라는 로동계급의 투쟁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러던중 레닌은 1895년 12월 짜리반동정부에 체포되여 3년간 씨비리에서 류형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류형지에서도 혁명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30건이상의 로작까지 집필하여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 레닌은 불원천리 류형지까지 찾아온 크룹스까야라는 녀성과 결혼하였다. 1900년 7월부터 1905년 11월까지 뮨헨, 런던, 제네바 등지에서 해외활동을 벌리던 레닌은 1905년 로씨야혁명시기에 로씨야로 돌아왔다가 혁명이 실패한 후 다시 핀란드, 스위스, 빠리 등지에서 혁명활동을 벌리면서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여 로씨야에서 사회주의혁명승리가 가능하다는 리론을 내놓았다. 그러던 레닌은 1917년 2월 로씨야혁명이 승리하고 볼쉐비크당의 활동이 합법화되자 망명지에서 뻬뜨로그라드로 돌아오게 되였다.

2. 10월무장폭동의 승리

볼쉐비크당은 7월사변이후 제6차대회를 소집하고 대회결정에 따라 무장폭동준비를 적극 다그쳐나갔다.

당시 반혁명세력의 주력은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한 꼬르닐로브도당이였다.

짜리로씨야의 전선군 총사령관이였던 꼬르닐로브는 영, 프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1917년 8월 전선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키고 반혁명적기병군단으로 하여금 뻬뜨로그라드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 위급한 시기에 볼쉐비크당이 투쟁의 선두에 서서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여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반혁명적림시정부는 급격히 고립약화되고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볼쉐비크편으로 넘어옴으로써 혁명력량이 결정적으로 우세하게 되였다.

볼쉐비크당은 혁명정세가 성숙됨에 따라 무장폭동준비를 다그쳤다.

이해 10월 레닌이 핀란드로부터 비밀리에 뻬뜨로그라드로 돌아왔다.

레닌의 참가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무장폭동의 지도기관으로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과 기업소들에 적위대가 조직되였으며 뻬뜨로그라드수비대와 발뜨함대들에는 정치위원들이 파견되였다.

볼쉐비크당의 무장폭동계획을 알게 된 림시정부는 급속히 자기의 력량을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반혁명적인 장교들은 《장교동맹》을 조직하였고 반혁명분자들은 도처에서 《돌격대》를 편성하였다.

10월 24일 아침에 림시정부는 먼저 선손을 써서 경찰과 장교부대들을 파견하여 볼쉐비크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자의 길》인쇄소를 공격하여 출판물을 몰수하고 인쇄소를 페쇄하였다.

볼쉐비크당 중앙위원회는 시급히 적위대와 혁명적병사들을 보내여 《로동자의 길》인쇄소를 역포위하고 적들을 무장해제시켰다.

무장폭동을 더는 지체할수 없게 된 볼쉐비크당은 드디여 폭동

을 개시하였다.

레닌의 지시에 따라 10월 24일 밤에 로동자적위대, 발뜨함대 해병들, 수도의 수비대들로 이루어진 20여만의 무장대오가 일제히 떨쳐나섰다.

폭동부대는 먼저 네바강을 통하는 다리들과 우편국, 전신전화국, 국립은행, 철도 등을 점령하고 림시정부가 자리잡고있던 동궁을 포위하였다.

10월 25일 밤 폭동군은 순양함 《아브로라》호의 장엄한 포성과 함께 일제히 동궁을 공격하여 다음날 새벽에 그를 점령하고 림시정부대신들을 모조리 체포하였다. 뻬뜨로그라드에서의 무장폭동은 완전히 승리하였다.

이어 1917년 10월 25일(신력으로 11월 7일) 밤에 스몰리느이궁전에서는 제2차 전로쏘베트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에서는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쏘베트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리하여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사회주의국가로서 로씨야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이 세워졌다. 수도 뻬뜨로그라드에서 무장폭동이 승리한 후 혁명은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로 급속히 확대되였다. 모스크바에 쏘베트정권이 수립된데 이어 씨비리와 원동지방에서도 쏘베트정권들이 수립되였다. 이리하여 쏘베트정권은 혁명이 시작된지 불과 3~4개월내에 로씨야의 광활한 령토우에 수립되였다.

10월혁명의 승리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없애고 사회주의건설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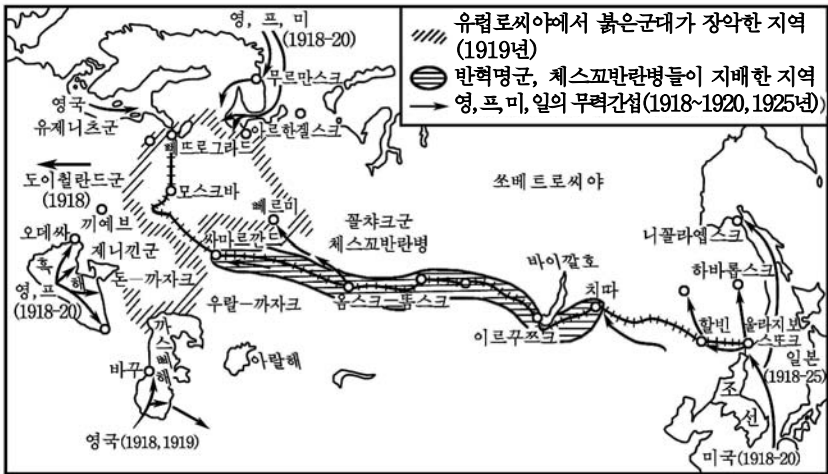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는 세계 수억만 피압박인민들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제2절. 로씨야에서의 공민전쟁

1. 공민전쟁의 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후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은 청소한 쏘베트공화국을 침공하여 그것을 말살하려고 기도하였습니다.》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하여 쏘베트정권이 수립되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14개의 제국주의나라들은 갓 창건된 쏘베트공화국을 말살하고 로씨야를 나누어먹으려고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공민전쟁도

제국주의자들은 아직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은 조건을 고려하여 반쏘무력간섭에 자기 나라 군대보다 주로 로씨야반동들을 그러모아 무장시킨 다음 그들을 쏘베트국가를 반대하는데로 내몰았다.

제국주의자들은 1918년 3월부터 씨비리와 원동, 로씨야북부로 침략군을 들이밀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발을 맞추어 국내에서는 꺼꾸러졌던 반동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반혁명적백파군대를 편성하고 곳곳에서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꼴챠크는 옴스크를 중심으로 한 씨비리와 원동지방에서, 제니낀은 돈바스와 깝까즈에서, 유제니츠는 에스또니야를 중심으로 서북지방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아 반혁명적인 백파군대를 무어가지고 좁은 포위망으로 로씨야중앙을 압착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백파군대의 무력침공에 발을 맞추어 멘쉐비크와 에쎄르도당도 혁명력량에 대한 테로를 일삼으면서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반혁명적인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지어는 에쎄르녀성당원 까쁠란을 시켜 1918년 8월 미헬손공장에서 연설하고 나오는 레닌을 사격하여 중상을 입히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과 국내반동들의 반혁명적책동으로 하여 청소한 쏘베트로씨야는 적들의 사면포위에 들어갔다. 방금 태여난 쏘베트국가앞에는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다.

이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여 볼쉐비크당과 쏘베트정부는 《사회주의조국은 위험에 처하였다》,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혁명을 수호하는 투쟁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켰으며 짧은 기간에 붉은군대의 대렬을 대대적으로 꾸릴것을 호소하였다.

쏘베트인민을 원쑤격멸에로 불러일으키는 레닌

이리하여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로농국방위원회가 조직되고 붉은군대대렬이 급속히 확대되였다.

한편 쏘베트국가는 국가의 모든 예비를 총동원하여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상대책으로서 전시공산주의시책을 실시하였다. 특히《빈농은 그만두고 중농은 적당히, 부농은 더 많이》내는 원칙에 따라 여유량곡을 국가가 받아들여 전쟁에 필요한 식량수요를 보장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2. 공민전쟁에서 쏘베트로씨야인민의 승리

1918년 11월 도이췰란드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제국주의렬강들은 전쟁에 동원하였던 군대까지 내몰아 쏘베트국가를 단숨에 집어삼킬듯이 덤벼들었다.

그리고 반혁명적백파군대를 대대적으로 늘여 100만의 무력을 편성하였다. 당시 가장 위험한 전선은 동부전선이였다.

해군대장이였던 꼴챠크는 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아 옴스크에서 반혁명《정부》를 세운 다음 1919년 3월 40만의 대병력으로

로씨야반혁명분자들을 길잡이로 하여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는 미, 영, 프제국주의자들

우랄산맥을 넘어 볼가강계선까지 쳐들어갔다.

그러나 프룬제가 지휘하는 동부전선의 붉은군대는 1919년 4월부터 총공격을 개시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꼴챠크군대를 우랄산줄기 밖으로 내쫓았다.

도망치던 꼴챠크군대는 적후에서 활동하던 빨찌산부대들에 의하여 1919년말까지 기본적으로 격멸되였다. 꼴챠크는 빨찌산들에게 체포되여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꼴챠크도당이 격멸된 후 제국주의자들은 남부전선의 제니낀도당에게 기대를 걸고 모든 힘을 다하여 제니낀백파군대를 무장시켰다.

1919년 가을 제니낀백파군대는 우크라이나와 로씨야남부지방을 점령하고 모스크바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볼쉐비크당 중앙위원회는 제니낀백파군대에 대한 반격을 가하기 위하여 3만여명의 공산당원들과 청년들을 남부전선으로 파견하였으며 쓰딸린을 남부전선 정치위원으로 파견하여 새로운 작전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1919년 10월 중순 붉은군대는 총공격으로 넘어갔다. 1920년 3월 붉은군대는 제니낀도당의 마지막소굴인 노보로씨스크를 해방함으로써 반혁명적백파군대의 기본적인 집단을 소멸하였다. 제니낀은 영국배에 숨어서 도망쳤다.

제니낀백파군대를 격멸하던 시기에 서부전선에서 유제니츠백파군대를 소멸하는 전투가 동시에 진행되였다. 서부전선의 붉은군대는 발뜨해함대와의 협동작전을 벌려 3일만에 유제니츠백파군대를 소멸하였다.

꼴챠크, 제니낀, 유제니츠백파도당이 격멸됨으로써 붉은군대는 공민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제니낀백파군이 격멸된 후 제국주의자들은 또다시 뽈스까의 백파군대와 크림반도에 둥지를 틀고있던 우랑겔백파군대를 반쏘침공에로 내몰았다.

1920년 6월 반공격으로 넘어간 붉은군대는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안기고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씨를 해방하였다. 이어서 붉은군대는 패주하는 뽈스까백파군을 뒤쫓아 뽈스까의 수도 와르샤와 가까이까지 진격하였다. 그리고 뽈스까반동정부로부터 우크라이나

와 벨라루씨의 독립을 인정받았다.

1920년 10월말 붉은군대는 우랑겔백파군대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여 로씨야의 남부지방과 크림반도에서 적들을 완전히 소탕하였다.

이리하여 쏘베트인민은 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과 국내반혁명도당을 반대하는 간고하고 준엄한 3년간의 공민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고 세계최초의 사회주의정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다.

제3절. 쏘련의 형성, 사회주의공업화와 농업집단화

1. 쏘련의 형성

공민전쟁에서 승리한 쏘베트인민은 1920년말부터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달라붙었다.

쏘베트로씨야에서 인민경제복구사업은 매우 어려운 환경속에서 진행되였다.

4년동안 진행된 제1차 세계대전과 3년간의 공민전쟁으로 하여 경제는 파괴되였고 인민들의 생활은 몹시 곤난하였다.

볼쉐비크당의 령도밑에 쏘베트인민들은 겹쌓인 난관을 이겨내면서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들을 복구하였으며 도처에 크고 작은 발전소들을 건설하였다. 이리하여 인민경제복구사업은 1925년에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는 사업과 함께 쏘베트정권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것은 쏘련을 형성하는것이였다.

쏘련을 형성하는것은 다민족국가인 쏘베트로씨야에서 민족들간에 존재하고있던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쏘베트국가안에 포함되여있는 5개의 사회주의가맹공화국을 하나로 단합시키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였다.

그뿐아니라 쏘련을 형성할수 있는 조건들도 마련되여있었다.

당시 쏘베트국가안에 존재한 볼쉐비크당과 붉은군대는 모든 사회주의공화국들을 대표하는 당이였고 군사조직이였다. 쏘베트국가안에 존재한 당과 군대가 하나였기때문에 모든 민족국가들을 하나

로 련결시켜 파괴된 인민경제를 하루빨리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를 보위하는 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다.

쏘베트로씨야에서 인민경제복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을 때인 1922년 12월 30일 모스크바에서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쏘련)을 형성할데 대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여기에는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하던 로씨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씨, 자깝까즈(아제르바이쟌, 아르메니야, 그루지야의 련합) 등 4개의 쏘베트공화국들이 가맹하였다. 그후 쏘련에 많은 공화국들이 가맹하여 가맹공화국수는 15개로 늘어났다.

인민경제복구사업이 거의 끝날무렵인 1924년 1월 볼쉐비크당과 쏘베트정부의 지도자인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이 서거하였다.

레닌의 위업은 쓰딸린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레닌의 서거를 계기로 쏘련인민은 쓰딸린과 볼쉐비크당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2. 사회주의공업화와 농업집단화

쏘련인민은 인민경제복구사업을 끝마친 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에 들어섰다. 짜리로씨야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회주의공업화와 농업집단화를 실현하는것이였다.

1925년 12월 볼쉐비크당 제14차대회에서는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함으로써 쏘련을 뒤떨어진 농업국가로부터 발전된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것을 결정하였다.

당대회이후 쏘련인민은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쏘련정부는 내부원천을 동원하여 마련된 10억Rbl(루블)이상의 자금을 공업부문에 투자하여 드네쁘르수력발전소, 쓰딸린그라드뜨락또르공장, 로스또브농기계공장과 같은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였다.

쏘련에서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벌어지자 당내에 숨어있던 기회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은 당중앙을 공격하여나섰다. 이자들은

쏘련과 같이 뒤떨어진 농업국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유럽선진국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 그 나라들의 방조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떠벌이면서 당의 공업화로선과 농업집단화방침을 악랄하게 반대하였다.

쓰딸린

쓰딸린을 수반으로 하는 볼쉐비크당중앙은 기회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온갖 궤변과 해독행위를 비판폭로하고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레닌적로선을 힘있게 관철해나갔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쏘련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1937년에 쏘련의 공업생산은 1929년수준의 4배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쏘련은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공업의 절대생산량에서 발전된 자본주의국가들인 도이췰란드, 영국, 프랑스 등을 따라잡게 되였다.

쏘련에서 사회주의공업화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을 때 농업은 아직도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농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기 위해서는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협동화를 하여야 한다.》

쏘련에서 짜리로씨야로부터 물려받은 봉건적생산관계를 청산하고 농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기 위해서는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여야 하였다.

1927년 12월 볼쉐비크당 제15차대회에서는 나라의 공업화가 일정하게 추진된 조건에서 자원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농민들을 집단경리에 묶어세우는 사회주의농업집단화방침을 제시하였다.

당대회이후 쏘련인민은 부농들의 반항을 물리치고 농업집단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쏘련에서 농업집단화는 사회주의공업화를 먼저 하고 그 기초우

에서 진행하였다.

농업집단화는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부농을 제한, 청산하는 계급정책에 따라 진행되였다.

쏘련에서 농업집단화가 완수되고 기계화가 널리 실시됨으로써 쏘련농촌은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였다.

※ 레닌의 충실한 후계자 쓰딸린

이오씨프 위싸리오노비치 쓰딸린(1879－1953)은 그루지야의 찌플리스주 고리시에서 제화공의 아들로 태여났다. 혁명운동에 일찌부터 참가한 쓰딸린은 19살 때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한 성원이 되여 로동자들속에 맑스주의를 연구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고향의 고등신학교를 다니던 그는 맑스주의를 선전하였다는 리유로 학교에서 출학당하게 되자 이때부터 혁명의 길에 자기 한몸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비밀리에 혁명투쟁을 적극 벌려나갔다. 레닌의 충직한 전우로서 그의 사상과 리론을 옹호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쳤으며 1905년에 레닌을 만난 이후에는 그와 혁명투쟁을 같이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여러차례 체포되였으나 그때마다 탈출하였다. 1917년 2월혁명이후에는 합법적으로 활동하면서 레닌과 함께 사회주의10월혁명을 지도하였고 그후에는 쏘베트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면서 공민전쟁시기 쏘베트정권을 지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뜨로쯔끼, 부하린 등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레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쳤다.

레닌이 서거한 후에는 그의 위업을 계승하여 쏘련에서 사회주의공업화, 농업집단화를 실현하였으며 쏘도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였다. 그리하여 쏘련 원수, 대원수칭호와 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1953년 3월 5일 병으로 서거하였다.

제4절. 중국에서 5.4운동, 국공합작

1. 5.4운동

제1차 세계대전이후에도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반봉건반식민지국가로 남아있었다.

중국에서는 포악한 봉건군벌통치가 실시되였고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은 단기서, 장작림, 조곤, 오패부, 풍옥상 등 군벌들간의 싸움이 계속되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는 중국인민을 각성시켰다. 중국인민들속에서는 반제자주의식이 강하게 움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기 중국에서는 5.4운동으로 불리우는 전인민적인 반제반봉건투쟁이 일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제국주의렬강들은 프랑스의 빠리에 모여들어 전패국들의 식민지를 다시 분할해가지기 위한 강화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국가 대표들은 일제와 결탁하여 도이췰란드의《세력권》이였던 산동반도를 일제에게 넘겨주기 위한 문건을 만들어 그것을 회의에 참가한 중국대표에게 내리먹이려고 하였다.

중국대표는 이 사실을 무전으로 베이징정부에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자주권을 심히 유린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베이징정부의 매국배족행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

이 소식은 전체 중국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는 시대의 앞길을 개척하는데서 언제나 청년들이 앞장에 섰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1919년 5월 4일 베이징대학을 비롯한 베이징시 각급학교 학생 3 000여명은 천안문광장에 모여 빠리강화회의결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다음《청도를 다시 찾자!》,《중국은 중국사람의것이다!》,《친일역적을 처벌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에 들어갔다.

시위자들은 총통부앞으로 밀려가 민족의 리익을 일제에게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조여림, 장종상, 륙종여 등 매국역적들을 처벌할

천안문광장에서의 시위

것을 요구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총통부에서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길로 군대와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였다.

다른 한 시위대렬은 매국역적 조여림의 집을 습격하여 그곳에 숨어있던 장종상에게 된매를 안기고 집에 불을 질렀다. 륙종여는 미리 기미를 알아차리고 도주하였다.

그러나 중국반동경찰의 탄압책동으로 하여 30여명의 학생들이 체포되고 한 학생은 처참히 살해되였다.

이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더 큰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그 다음날부터 베이징시의 전체 학생들은 일제히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용감한 투쟁에 고무된 베이징시민들도 투쟁에 떨쳐나섰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학생들과 시민들의 투쟁은 삽시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5.4운동이 전국적범위로 확대되자 이에 질겁한 반동군벌정부는 6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1 000여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인민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고 더욱 용감히 투쟁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중국의 20개 성과 100여개의 도시들에 확대되여 중국의 전지역을 휩쓸었다.

인민들의 강력한 혁명적진출에 겁을 먹은 반동정부는 체포한 학생전원을 석방하였으며 세 매국역적을 자기 직무에서 떼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빠리강화회의에 참가한 중국대표에게 제국주의렬강들이 강요하는 조약문건에 수표하지 말것을 지시하였다.

6월 28일 빠리강화회의에 참가한 중국대표는 조약문건에 조인하는것을 거절하였다.

5.4운동은 중국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5.4운동을 계기로 중국혁명은 공산당과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2. 제1차 국공합작

5.4운동이후 중국에서는 혁명운동이 급속히 장성하였다.

로동운동이 급격히 앙양되는 속에 1921년 7월 1일 상해에서 중국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중국공산당은 로동운동을 적극화하는 한편 손중산(손문)이 지도하는 국민당과 동맹을 맺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이였다.

당시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한 중국반동군벌들이 지배권을 위한 쟁탈전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국사회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갔다.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의 합작을 실현하고 북부에 있는 봉건군벌을 치기 위한 북벌을 진행함으로써 봉건군벌정권을 타도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며 나라의 통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 국민당을 지도하고있던 손중산의 사상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손중산은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에 자기의 사상과 국민당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총화하고 신해혁명시기에 내놓았던 구삼민주의대

신에 신삼민주의를 내놓았다.

신삼민주의는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지배를 청산하는 민족주의,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를 보장하는 민권주의, 토지소유를 고르롭게 하고 자본을 제한하는 민생주의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손문은 신삼민주의에 기초하여 《련쏘》(쏘련과 련합), 《련공》(공산당과 련합), 《부조공농》(로동자와 농민들의 동맹)의 3대정책을 내놓았다.

손 중 산(손문)

이는 당시의 중국형편에서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강으로서 중국공산당이 주장한 통일전선로선에 맞는것이였다.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손중산과 그가 지도하는 국민당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북벌을 위한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합작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공산당과 국민당과의 동맹 즉 국공합작이 실현되게 되였다.

1924년 1월 광주에서 국민당을 다시 개조하는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회의가 열리였다. 대회에는 국민당과 공산당대표 165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공산당원들이 개인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한다는 결정을 채택하고 공산당과 국민당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이것을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국공합작의 실현은 중국혁명을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였다.

국공합작이 실현된 후 공산당과 국민당은 광동성 광주시에 손중산을 총통으로 하는 국민혁명정부를 세웠다.

이리하여 중국에는 두개의 정부 즉 북방의 베이징봉건군벌정권과 남방의 광동국민혁명정부가 수립되여 서로 대립되게 되였다.

광동국민혁명정부는 공산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혁명적으로 개조되여갔다.

공산당과 국민당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황포섬에 지휘관들을 키우기 위한 황포군관학교가 세워졌다. 이 학교 교장은 장개석이, 정치부주임은 공산당대표인 주은래가 하였다.

황포군관학교에서 키운 지휘관들을 골간으로 국민혁명군이 창건되였다.

※ 모택동과 주은래의 초기혁명활동

모택동(1893－1976)은 호남성 상담현 소산에서 출생하여 서당과 중학교를 마친 후 1918년 여름까지 호남에 있는 사범학교를 다니였다. 이때부터 그의 혁명활동이 시작되였다. 그는 학우회와 《신민학회》를 조직하고 학생들을 묶어세우는 한편 베이징에서 리대소를 만나 베이징대학도서관에서 그의 조수로 있으면서 맑스주의를 학습하였다. 반년이후 장사로 다시 온 모택동은 여기서 1919년 5.4운동에 참가하여 출판활동과 대중집회를 통하여 반동군벌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다. 그후 1921년 7월 상해에서 열린 중국공산당창립대회에 호남대표로 참가하여 큰 역할을 하였다.

주은래(1898－1976)는 강소성에서 하층관료, 학자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천진에 있는 중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러던 그는 19살 때에 혁명의 진리를 찾기 위하여 멀리 동쪽에 있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일본에서 겨우 공부를 하면서 맑스주의를 탐독하였다.

귀국이후 전 중국을 뒤흔든 1919년 5.4운동시기에는 천진에서 학생운동을 지도하다가 반동군벌들에게 체포되였지만 감옥에서 옥중투쟁을 적극 벌려 1920년 7월에 석방되였다.

그해 11월 프랑스에 류학을 간 주은래는 중국공산당의 한 성원이 되여 해외에서 중국공산당 지부를 내오고 혁명투쟁을 적극 벌렸다. 1924년에 조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광동성당 서기로, 국공합작이후 장개석이 교장으로 있던 황포군관학교에서 정치부주임으로 있었다.

모택동과 주은래는 그 이후에 서로 손을 잡고 중국공산당과 중국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쳤다.

제5절. 제1차 국내혁명전쟁(북벌전쟁)과 장개석의 배신

1. 제1차 국내혁명전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20년대 후반기부터 중국혁명은 혁명전쟁의 방법으로 전국의 반동통치를 전복하는데로 나아갔다.》

혁명이 전국적으로 앙양되고있던 1920년대 후반기에 반동군벌들은 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싸움질을 계속하였다.

군벌들의 싸움으로 베이징군벌정권의 통치체계는 마비되고 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더는 참을수 없게 된 중국인민은 국민혁명정부에 하루빨리 반동군벌들을 쳐없애고 통일된 민주주의국가를 세울것을 한결같이 요구하였다.

이리하여 중국에서는 제국주의와 봉건군벌세력을 반대하는 제1차 국내혁명전쟁이 진행되였다. 이를 《북벌전쟁》이라고 한다.

1926년 7월 드디여 5만명의 국민혁명군(총사령은 장개석임)은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군벌을 타도하자!》, 《봉건세력을 타도하자!》는 구호밑에 북벌을 시작하였다.

북벌전쟁을 시작한 국민혁명군은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호남, 호북지방의 군벌세력인 오패부, 손전방군벌군을 격파하였다.

국민혁명군은 1926년말까지 중국의 중남부지방과 이 지역에 사는 1억 5천만명의 주민을 해방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해방지구가 확립되자 국민혁명정부는 1926년 12월 자기의 소재지를 광동으로부터 무한으로 옮기였다.

그후 중국에서는 무한을 중심으로 혁명운동이 날을 따라 발전하였다.

국민혁명군이 오패부, 손전방군벌군을 소탕하고 베이징을 향하여 승리적으로 진격할 때 이에 고무된 상해시 로동자들은 공산당의 지도밑에 3차례의 폭동을 일으켰다.

1927년 3월 주은래의 지도밑에 상해폭동군은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끝내 상해시를 해방하였다.

해방된 도시에서는 공산당의 지도밑에 상해림시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국민혁명군은 남경을 해방하였다.

중국에서 날이 감에 따라 혁명전쟁이 승리하고 상해와 남경까지 해방되자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령사관이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군함을 동원하여 남경에 마구 포탄을 쏟아부어 수많은 주민들을 살해하고 건물을 파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2. 장개석의 배신과 북벌전쟁의 실패

제국주의자들의 남경침략과 때를 같이 하여 장개석의 반혁명적 책동이 로골화되였다.

1925년에 손중산이 병으로 사망하자 장개석은 국공합작을 파탄시키고 제놈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공산당의 지도부를 차지하고있던 진독수를 비롯한 우경투항주의자들은 국공합작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당을 놀래워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장개석도당에게 타격을 주는것을 가로막았다.

더욱 교만해진 장개석도당은 지난 시기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1927년 4월 장개석도당은 로동자로 가장한 깡패무리들을 내몰아 로동자규찰대와 싸우게 한 다음 《로동자들끼리 싸운다.》는 구실을 붙여 로동자규찰대의 무장들을 해제하게 하였다.

이에 격분한 상해시의 로동자들은 다음날 군중대회를 열고 장개석도당에게 항의를 들이대였다. 그러나 장개석도당은 기관총사격을 퍼부어 100여명을 살해하고 수백명에게 부상을 입히였으며 공산당과 로동조합들을 습격파괴하였다.

장개석도당은 상해무장봉기를 지도한 공산당지도자 주은래까지 체포하였다. 이 정변을 계기로 장개석도당은 광동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공산당원들과 로동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만행을 감

행하였다. 그리고 국민혁명군안에서 공산당과 로동자출신의 지휘관들을 내쫓음으로써 국공합작을 파탄시켰다.

장개석도당은 남경에서 반혁명정부를 따로 꾸며내고 무한에 있던 국민혁명정부까지 제놈의 손아귀에 틀어쥐였다.

이리하여 제1차 국내혁명전쟁은 실패하였다.

그후 장개석도당은 베이징에 있던 군벌정권과 동북땅까지 거머쥠으로써 전 중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제6절. 제2차 국내혁명전쟁과 2만 5천리장정, 서안사변

1. 제2차 국내혁명전쟁의 시작, 2만 5천리장정

제1차 국내혁명전쟁이 실패한 후 중국공산당은 긴급회의를 열고 공산당의 독자적인 무력을 창건하여 장개석의 국민당무력과 싸울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강서성 남창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켜 장개석의 반혁명적무력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국에서도 많은 독립운동과 무장투쟁이 있었지만 남창폭동(1927년 8월 1일)에서 비로소 중국인민해방군이 창건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중국공산당의 지도밑에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처음으로 무장을 들고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으며 인민의 혁명무력을 조직하였기때문입니다.》

공산당은 남창폭동을 위하여 주은래를 책임자로 하는 지도부를 구성하고 폭동에 주덕, 엽정, 하룡의 부대를 참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8월 1일 새벽, 드디여 3만여명의 봉기군이 남창시에 대한 공격에로 넘어갔다. 전투가 시작되여 몇시간안에 적들은 모조리 녹아나고 도시가 완전히 봉기군에게 장악되였다.

남창폭동을 계기로 중국공산당은 자기들의 독자적인 무력인 홍군을 가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제2차 국내혁명전쟁이 시작되게 되였다.

남창폭동이 있은 후 중국공산당은 혁명을 넓은 농촌지역에로 확대하기 위하여 농민들을 추수폭동에로 불러일으켰다.

추수폭동은 당시 모택동이 활동하고있던 호남지역에서 가장 강력히 벌어졌다. 모택동은 추수폭동이 끝난 후 폭동군을 이끌고 정강산으로 들어가 그곳에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그후 남창폭동부대가 정강산에 들어가 그곳의 로농홍군과 합류하였다. 로농홍군은 정강산쪽으로 진격하여 넓은 지역을 해방하고 중앙근거지를 창설하였다. 당시 해방지구는 전국적으로 15개 지역에 창설되였다.

해방지구들에는 로농정부가 조직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이 실시되였다. 홍군의 수도 10만명으로 장성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장개석도당은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여러차례에 걸쳐 중앙근거지를 포위《토벌》하였다.

홍군과 해방지구인민들은 영웅적인 항쟁을 벌려 장개석군대의 《토벌》작전들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해방지구를 지켜냈다.

이 시기 일제침략군은 중국의 동북지방을 강점하고 전 중국을 강점할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그러나 장개석도당은 일제와 싸워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구원할 대신 침략자와 타협하면서 모든 력량을 홍군을 공격하는데 돌리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1934년 10월 홍군지휘부는 일부 홍군부대를 중앙해방지구에 남겨둔채 주력부대를 이끌고 력사적인 2만 5천리장정의 길에 올랐다.

장정도중에 중국공산당은 귀주성 준의에서 회의를 열고 당지도부의 결함을 비판하고 모택동을 수반으로 하는 새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준의회의후 홍군은 적수강을 네번 넘나들고 금사강을 묘하게 건느면서 적들을 어리벙벙하게 만들고 멀리 떨구어놓은 다음 1935년 5월 대도하를 강행도하하였다. 모진 고난끝에 홍군은 1935년 10월 드디여 목적지인 섬북해방지구(섬서성북부)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1934년 10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에 걸쳐 진행한 홍군의 력사적인 2만 5천리장정은 승리적으로 결속되였다.

2. 서안사변

1935년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중국침략은 더욱 강화되였다. 이와 함께 장개석도당의 반인민적정책도 더욱 로골화되였다. 지어 장개석도당은 일제와 비밀리에 공산당과 홍군을 공동으로 반대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들을 항일에로 불러일으키는 한편 장개석의 국민당에 국내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항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것을 제기하였다. 중국공산당의 호소는 전체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때 홍군공격에 동원되였던 장학량의 동북군과 양호성의 17로군병사들은 홍군과의 싸움을 거부하고 자기의 지휘부에 홍군과 공동으로 항일을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장학량과 양호성은 병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1936년 봄에 정식 홍군과의 전쟁을 중지하였다.

1936년 10월 장개석은 비행기를 타고 남경으로부터 서안에 와서 장학량과 양호성에게 계속 홍군에 대한 공격을 강요하였다. 당시까지만도 장개석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장학량은 장개석을 만나 항일할데 대하여 3시간이나 울면서 요구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장학량은 양호성을 만나 즉시 장개석을 잡아가두고 그로부터 항일을 할데 대한 답변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1936년 10월 장학량과 양호성은 병사들을 동원하여 장개석을 체포함과 함께 서안에 있는 장개석의 부하들을 모조리 잡아가두었다. 바로 이것이 국내외를 진감시킨 《서안사변》이였다.

남경의 국민당정부는 서안의 《폭동부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국민당정부에 국내전쟁을 부추기는 한편 이 기회에 중국에 대한 대규모적인 침공을 감행하려고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국내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주은래를 단장으로 하는 자기의 대표를 서안에 파견하였다. 서안에 도착한 주은래는 장학량과 양호성에게 공산당과 함께 항일할것을 담보하는 조건에서 장개석을 석방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리하여 장개석은 일제와 싸우겠다는것을 《약속》하고 12월 석방되여 남경으로 돌아갔다. 이때 장학량은 장개석의 마음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장개석을 따라 남경까지 갔으나 그후에 사태는 더욱 복잡하여졌다.

장개석은 서안에서 석방되여 남경으로 오자마자 인차 장학량을 체포하였다. 이 소식은 곧 장학량의 동북군병사들에게 전달되였다. 그러자 장개석의 처사에 격분한 동북군지휘관들은 동북군사업까지 맡아보는 양호성에게 찾아가 남경측과 결사적으로 싸워 장학량을 구원할것을 청원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내전이 터질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였다.

동북군안에서도 주전파(전쟁을 주장하는 파)와 주화파(화의를 주장하는 파)간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때 주은래는 동북군병사들속에 들어가 연설도 하고 두파의 병사, 군관들을 다같이 대해주면서 그들이 서로 단결하여 합작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60여일만에 서안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후 장개석은 항일을 요구하는 공산당과 전체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압력에 못이겨 1937년 2월 국민당회의를 열고 내전을 중지하고 국공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확정하였다.

제7절. 웰남인민의 독립투쟁

1. 호지명과 인도지나공산당(당시)의 창건

웰남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에도 여전히 프랑스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남아있었다.

이때 웰남인민들속에서는 자주의식이 크게 자라나고 로동운동을 비롯한 혁명운동이 장성강화되였다.

이러한 시기 웰남에는 공산주의사상이 보급되고 공산주의소조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웰남에서 공산주의사상을 보급하고 공산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지도한 사람은 호지명이였다. 어릴 때부터 애국심이 높았던

호지명은 아버지와 형이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체포되자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사회당에 들어가 혁명운동에 참가하였다.

그후 호지명은 국제공산당안에서 《동방부》상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웰남혁명을 위한데 모든 힘을 다하였다.

호지명은 당시 웰남이 프랑스제국주의에 예속된 조건에서 투쟁무대를 웰남과 국경이 가까우면서도 손중산의 국민혁명정부가 수립된 중국의 광동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공산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였다.

1925년 6월 호지명은 광주에서 마침내 웰남의 애국적청년학생들을 망라하여 웰남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조직인 《웰남청년혁명동지회》를 결성하였다. 동지회는 결성이후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속에서 공산주의사상을 보급하면서 우수한 청년들을 받아들여 조직의 대렬을 늘여나갔다.

1927년 5월 1일 호지명은 홍콩에서《웰남청년혁명동지회》제1차 전국대회를 소집하고 동지회를 공산당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동지회안의 기회주의자들이 반대해나섬으로써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후 웰남에는 3개의 공산주의적조직들이 출현하였다. 이 조직들은 제각기 자기 파를 내세우려하면서 통일적인 당의 창건을 방해하여나섰다.

호지명의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에 의하여 1930년 2월 홍콩에서 로동계급의 통일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3개 공산주의적조직대표들의 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웰남에 존재하는 3개의 공산주의적조직들을 통합하여 통일적인 웰남공산당을 창건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1930년 10월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웰남, 라오스, 캄보쟈가 다같이 프랑스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웰남공산당을 웰남, 라오스, 캄보쟈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인도지나공산당(당시)으로 바꿀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다. 인도지나공산당(당시)이 창건된 후 웰남에서는 공산당의 령도밑에 혁명운동이 새롭게 장성하였다.

2. 느구엔－딘쏘베트운동과 나라의 독립

웰남에서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지나공산당(당시)의 령도밑에 침략자들에게 항거하는 대중적투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1930년 9월 느구엔－딘지역에서는 농민들의 대중적인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쏘베트를 수립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각국의 혁명투사들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인된 사조로 류행되고 전파되였다. 그 열풍은 구라파와 아세아를 가리지 않았다. 중국 서금의 중화쏘베트와 웰남의 느구엔－딘쏘베트의 수립은 그 좋은 례증으로 된다.》

폭동군중은 곳곳에서 지주와 반동관리들을 처단하고 그들의 집을 불살랐으며 지주들의 땅을 빼앗고 토지문서와 빚문서들을 불태워버렸다. 그러자 도시주변의 로동자들은 무장자위대를 조직하여가지고 농민들의 투쟁에 합세하였다.

그리하여 느구엔－딘지역은 완전히 폭동군중의 수중에 장악되고 인민쏘베트가 수립되였다.

그러나 느구엔－딘쏘베트앞에는 엄중한 난관들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무엇보다 가장 곤난한것은 식량사정이였다. 그해에 들이닥친 흉작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지어는 목숨까지 잃었다.

이러한 때 쏘베트는 로동자, 농민들을 위한 시책만 실시하고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나선 일부 인테리, 부자, 지주들까지 모조리 타도하라는 구호를 내듦으로써 당과 대중을 갈라놓고 그들이 쏘베트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하는 좌경적결함들을 범하여 혁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그때 쏘베트를 수립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혁명가들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인된것으로 류행되고 전파되였다.

느구엔－딘지역에 수립된 쏘베트정권은 인도지나공산당(당시)

의 옳바른 지도도 받지 못하였다. 그것은 인도지나공산당(당시)이 갓 창건된데다가 쏘베트정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하는지도 잘 몰랐기때문이였다.

이러한 때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모든 무력을 동원하여 느구엔—딘쏘베트지역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폭동자들은 쏘베트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나 력량상, 전술상 우세한 적들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낼수 없었다.

이리하여 1931년초 느구엔—딘쏘베트운동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웰남인민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프랑스가 파쑈도이췰란드에 강점된 기회를 리용하여 일제가 웰남을 강점하자 북부국경지역에 근거지를 설치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활발히 벌렸다.

1941년 12월에는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유격부대들을 통합하여 인민해방군을 창건하였다.

인민해방군은 무장활동을 적극 벌려 1944년 6월까지 북부웰남의 6개 주를 해방한 다음 여기에 강력한 해방지구를 창설하였다.

웰남인민은 1945년 8월 공산당의 령도밑에 일제를 완전히 몰아내고 나라를 해방하기 위한 8월혁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인민해방군은 일제의 침략거점들을 점령하고 하노이를 장악한 다음 이어서 바오다이황제가 도사리고있던 훼(유에시)를 들이치고 점령하였다. 인차 사이공(호지명시)도 해방되였다.

8월 27일 바오다이황제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웰남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였다.

이리하여 웰남에서 1000여년간의 봉건왕조의 지배가 끝장났으며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1945년 9월 2일에 열린 독립경축대회에서는 웰남민주공화국의 창건이 선포되였다.

제8절. 인디아인민의 반영투쟁과 간디

1. 간디와 인디아국민대회당

사회주의10월혁명후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은 더욱 강화되였다. 인디아에서도 영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이 더욱 앙양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 영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강도적략탈로 말미암아 인디아인민들은 막다른 처지에 빠졌다. 1918년 한해동안에만도 1 200만명이상의 인디아사람들이 굶어죽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인디아인민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하여 전후에 인디아의 자치를 허용하겠다고 선전하였으나 이것은 거짓말이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기만책동에 격분한 인디아인민들은 대중적인 반영투쟁에 궐기하였다. 투쟁의 선두에는 청소한 로동계급이 서있었다.

1918년 3월 100만의 뭄바이(봄베이)방직공들이 붉은기를 높이 들고 로동계급의 해방과 인디아의 독립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리였다.

그러나 당시 로동계급은 의식수준이 낮고 조직적으로 단결되지 못하였기때문에 혁명투쟁에서 령도계급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후 인디아인민의 반영민족해방투쟁은 간디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대회당에 의하여 지도되였다.

간디는 영국에서 대학을 마친 후 대상인인 아버지의 요구대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다가 조국에 귀국하여 국민대회당의 지도자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국의 지배를 저주롭게 여기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국인도 해칠 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영국정부의 조직적인 폭력을 억제할수 있는 힘은 조직화된 비폭력이라고 언명한 간디의 사상이 광범한 인도인민의 호응을 불러일으킨것은 그 사상을 관통하고있는 인도주의 정신의 힘에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간디는 국민대회당의 사상으로《자아완성론》에 기초한 비폭력불복종사상을 내놓았다.

《자아완성론》은 인간이 자유를 얻으려면 부단히 자기가 자신을 단련하고 개조하여야 한다는 개량주의적리론이다. 간디는 이러한 《자아완성론》을 받아들여 인디아가 영국의 식민지로 된것은 매 사람의 인격과 수양이 낮은데 있으며 자유를 얻는것은 영국과 싸울것이 아니라 매개 사람이 자기자신을 개조하고 단련하는것이라고 설교하였다. 때문에 간디는 영제국주의의 지배를 저주롭게 여기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국사람도 해칠 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영국정부의 조직적인 폭력을 억제할수 있는 힘은 조직화된 비폭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간디는 폭력투쟁으로 영국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나라의 완전해방을 이룩할것이 아니라 파업, 시위, 단식, 태업, 보이꼬트 등 비폭력적저항운동으로 《자치》형식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디와 국민대회당이 내놓은 정책은 리념상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것으로 되여있으나 방법상에서는 싸우지 않고 해결하려는 보수적인 저항운동이였다.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독립을 이룩하려면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한 폭력투쟁을 벌려야 한다.

2. 비폭력적불복종운동

제1차 세계대전후 영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인디아인민의 투쟁이 더욱 장성하였다.

영국식민지당국은 1918년에 내놓았던 기만적인 《인디아통치법》이 인디아인민들속에 더는 통하지 않게 되자 1919년 3월에는《로우렛트법》(《형사긴급소송권한법》)이란 악법을 조작공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악법을 휘둘러 아무때나 아무런 법적절차도 없이 인디아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처형하려 하였다.

영국식민지당국의 행위에 격분한 인디아사람들은 또다시《로우렛트법》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국민대회당의 불복종정책에 따라 인민들은 처음에는 파업과 시위, 집회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벌렸다.

투쟁은 점차 전 인디아에 파급되면서 불복종운동의 형태가 다

양해졌다.

관리들은 식민지당국의 관직에서 사직하였고 학생들은 식민지당국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로동자들은 파업과 시위를 벌리고 농민들은 식민지당국에 조세를 바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당황망조한 영제국주의자들은 《로우렛트법》을 휘둘러 인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4월 영제국주의자들은 판쟈브의 산업도시 암리짜르에서 인민들의 투쟁을 지도한 진보적인 교수 에쓰끼출과 싸찌야발을 《반정부선동죄》의 감투를 씌워 다른데로 추방해버리였다.

영국식민지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격분한 암리짜르시민들은 시청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후 달려드는 경찰과 몽둥이로 대항하면서 용감히 싸웠다.

더욱 바빠맞은 영국식민지당국은 군대와 경찰을 내몰아 1 000여명의 시민들을 학살하고 2 00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를 《암리짜르사건》이라고 한다.

영제국주의자들의 폭압만행에 격분한 판쟈브의 50여개 도시의 시민들은 인민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자들은 곳곳에서 적의 경찰기관들을 습격파괴하고 철도를 파괴하였으며 군용렬차들을 뒤집어엎었다.

이때 국민대회당은 판쟈브인민폭동을 옳게 지도할 생각은 하지않고 하부당조직들에 폭력투쟁을 중지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영국식민지당국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침략군대와 경찰, 지어는 비행대까지 폭동진압에 동원하였다.

놈들은 폭동참가자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여 모든 도시와 거리들을 온통 피로 물들이였다.

이와 같이 판쟈브지방에서 일어난 인민봉기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인 탄압만행과 인디아국민대회당 상층들의 투항변절행위로 하여 실패하였다.

※ 간디의 생애

마하트라 간디(1869—1948)는 대상인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본

명은 모한다스 카람챤드 간디이다. 19살 때에 영국에 가서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였으며 그후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로 가서 상업활동에 종사하였다. 이때에 그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인디아로동자들에 대한 백인들의 박해를 반대하고 평등권획득을 위한 투쟁을 지도하였다. 조국에 귀국하여 국민대회당의 지도자로 된 후에는 영국을 반대하는 불복종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영국식민지당국에 체포되여 2차례나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비폭력투쟁은 보수적인 저항운동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 옳은 투쟁방법으로 될수 없었다. 그리하여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1934년에는 국민대회당 위원장을 사임하고 은퇴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사이의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다가 1948년에 힌두교도의 우익분자들의 테로에 걸려 암살되였다.

제9절. 텔만의 활동과 함부르그폭동

1. 도이칠란드공산당과 텔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도이칠란드는 파멸적인 상태에 처하였다.

전쟁을 통하여 200만에 달하는 희생자가 났고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은 전쟁전의 절반아래로 떨어졌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한 상태에 빠지였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1918년 11월 도이칠란드해병들과 인민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반동적군주제도를 뒤집어엎었다. 그러나 혁명의 열매는 로동운동의 지도권을 쥐고있던 사회민주당 기회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

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자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혁명에서 결정적역할을 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탄압하고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때문에 로동계급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자면 사회민주당 기회주의자들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

적당의 령도를 받아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무렵으로 말하면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도 로동계급의 정당들이 많이 출현하던 때였다.》

1918년 12월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안의 좌파중심인물들인 칼 리프크네히트, 로자 룩셈부르그, 웰헬름 피크는 사회민주당으로부터 좌파의 분리를 선포하고 도이췰란드공산당을 창건하였다. 그후 도이췰란드에서 혁명운동은 더욱 장성하였다.

로 자

1919년 1월 베를린의 로동자들은 공산당의 지도밑에 사회민주당 기회주의자들의 정권을 빼앗기 위한 폭동을 일으켰으나 반동들의 탄압책동으로 하여 실패하였다. 반동정부는 공산당의 지도자들인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그를 체포하여 무참히 학살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을 진압한 부르죠아지들은 헌법제정회의 선거를 진행하고 부르죠아공화국(와이마르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리하여 1918년－1919년 도이췰란드혁명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도이췰란드공산당은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당대렬을 더욱 늘이며 대중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렸다.

그리하여 사회민주당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공산당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이렇게 되자 사회민주당에 들어갔던 많은 로동자들이 공산당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것은 에른스트 텔만이였다.

텔만은 함부르그에서 나서 어릴 때부터 로동을 하면서 로동운동에 참가하였다.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에 입당한 후에도 로동자들의 투쟁을 지도하였다.

이 과정에 텔만은 로동자들로부터 큰 신망을 얻게 되였으며 사

회민주당안에서 좌파세력의 중심인물로 되였다. 그리하여 1919년에는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 함부르그단체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사회민주당안에서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오던 텔만은 로자 룩셈부르그와 칼 리프크네히트가 사회민주당으로부터 좌파의 분리를 선포하고 공산당을 창건하자 인차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텔 만

그리고 함부르그사회민주당의 당원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어 1921년 12월에 함부르그사회민주당조직의 95%를 공산당에 입당시켰다.

그리하여 공산당의 대렬은 30만명으로 장성하였다. 이러한 공적으로 하여 텔만은 그 이듬해에 도이췰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였으며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까지 만났다.

※ 로자 룩셈부르그

로자 룩셈부르그(1871—1919)는 국제로동운동의 녀성활동가이며 도이췰란드공산당창건자의 한 사람이다. 뽈스까에서 태여난 그는 중학교시절에 벌써 비밀조직인 《프로레타리아트》당에 들어가 혁명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로 하여 로자 룩셈부르그는 반동경찰에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이때부터 그는 스위스, 뽈스까, 도이췰란드 등 여러 나라들에 자리를 옮기면서 선진사상을 탐독하고 혁명활동을 벌리였다.

특히 칼 리프크네히트와 같이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안의 혁명적인 좌파들로써 《스파르타쿠스단》이라는 비밀단체를 뭇고 제국주의전쟁과 2국제당안의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그러던 그는 반동경찰에 체포되여 4년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1918년에 놓여나왔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그는 혁명투쟁을 멈추지 않고 1918년 11월 도이췰란드에서 혁명을 지도하였으며 기회주의자들과 결별하고 《스파르타쿠스단》의 조직성원들을 핵심으로 도이췰란드공

산당을 창건하였다. 그는 1919년 1월 칼 리프크네히트와 함께 반혁명적장교도당에게 체포되여 학살되였다.

2. 함부르그무장폭동

1920년―1921년 경제공황을 계기로 도이췰란드반동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갔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공산당의 지도밑에 로동자들의 혁명적진출이 더욱 강화되였다.

1923년 5월 루르지방에서 40만명의 로동자들은 반동정부를 반대하여 큰 규모의 파업을 일으켰다. 그해 8월에는 베를린에서 로동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고 이어서 10월에는 공업이 발전한 삭소니아와 튀링겐에서 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로동자정부까지 조직하였다.

그러나 로동자정부안에 들어가있던 공산당대표들은 로동계급을 무장시켜 혁명을 보위하며 로동자들의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대신 우유부단한 립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반동통치배들은 반공격준비를 끝내고 6만명의 무력을 삭소니아에 들이밀었다.

위급한 정세하에서 공산당은 총파업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10월 23일 텔만에게 함부르그에서부터 무장봉기를 일으키라는 과업을 주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의 지도적지위에 있던 일부 불순분자들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래조직들에 무장폭동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이때 텔만이 지도한 함부르그공산당조직만이 함부르그로동자들을 발동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날에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10월 23일 새벽 봉기에 참가한 함부르그로동자들은 17개의 경찰서들을 점령하고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갖추었다.

무장봉기가 시작되자 질겁한 부르죠아지들과 관리들은 뺑소니를 치고 도시는 로동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로동계급은 인차 쏘베트정권수립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반동정부는 함부르그무장폭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6 000명의 반동경찰과 군대를 급히 파견하였다. 함부르그로동자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맞서 3일동안 밤낮이 따로없이 용감하게 싸웠다.

10월 25일 텔만은 당중앙위원회가 무장폭동을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함부르그로동자들에게 폭동을 중지하고 후퇴할것을 지시하였다.

바로 이때 반동들은 혁명력량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923년 함부르그무장폭동은 실패하였다.

1925년부터 도이췰란드공산당은 텔만의 지도를 받게 되였다.

그때부터 도이췰란드공산당은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면서 점차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여갔다. 공산당지도자인 텔만은 1925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립후보로까지 출마하였다.

제10절. 국제공산당

1. 국제공산당의 창건

제1차 세계대전후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는 이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국제적중앙을 내오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시대적요구와 관련되였다.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사회주의는 리상으로부터 현실로 되였다. 때문에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는 로씨야에 태여난 세계최초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그 성과를 세계적판도에서 확대해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제기되였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공산당들이 창건되였으나 이 당들은 혁명운동을 옳게 지도하리만큼 충분히 준비되여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10월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그 성과를 세계적판도에로 확대해나가려면 하루빨리 새로운 국제당을 창건하여야 하였다.

새로운 국제당창건이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것은 또한 제2국제당기회주의자들이 국제로동운동의 령도권을 탈취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기때문이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잔당들은 국제

로동운동의 령도권을 탈취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1919년 2월 스위스의 베른에 모여 붕괴된 제2국제당을 복구하였다.

이를 《베른국제당》 또는 《황색국제당》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또다시 수정주의의 구렁텅이에 빠질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레닌은 제2국제당의 잔당들이 《베른국제당》을 내오고 국제로동운동의 령도권을 장악해보려고 날뛰자 시급히 1919년 3월 모스크바에서 국제공산당창립대회를 소집하였다.

대회에는 30여개 나라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좌파들의 대표 5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국제공산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대회는 레닌의 보고에 기초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당면한 투쟁과업이 로동계급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혁명투쟁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새로 창건된 국제공산당이야말로 경제투쟁, 의회투쟁만 부르짖던 기회주의적《베른국제당》과 완전히 구별되는 혁명적인 국제당조직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대회는 국제공산당의 지도기관인 집행위원회를 선거하였으며 매개 나라에는 국제공산당지부를 하나씩 두기로 하였다.

국제공산당의 창건은 각국의 청소한 공산당들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각국 공산주의자들사이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함으로써 세계적범위에서 로동계급의 정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2. 국제공산당의 활동과 해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제국주의반동세력과의 격렬한 투쟁을 통하여 단련되였으며 또한 이 운동내의 온갖 기회주의적조류와의 투쟁을 통하여 공고화되였습니다.》

국제공산당은 창건된 초시기에 밖으로는 로동운동에서 제2국제당 기회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베른에서 복구된 제2국제당(황색국제당)은 이른바 로동자와

자본가들사이에 서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로동자, 농민의 정권인 쏘베트정권을 악랄하게 헐뜯었다.

그러나 레닌과 국제공산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황색국제당》은 나날이 고립되여갔으며 국제공산당의 권위와 영향력은 더욱더 높아졌다.

국제공산당은 밖으로는 제2국제당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한편 레닌이 서거한 후 국제공산당안에 나타난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강화하였다. 좌경기회주의는 혁명적인 구호나 행동으로 자기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우는 기회주의이다. 뜨로쯔끼를 두목으로 하는 좌경기회주의자들은 레닌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종파주의적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자들의 모든 배신적책동은 쓰딸린과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비타협적투쟁에 의하여 제때에 폭로분쇄되였으며 국제공산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더욱 공고발전되였다.

국제공산당은 1930년대에 국제적으로 파시즘이 대두하고 많은 나라들이 파쑈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반제반파쑈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벌써 우리 식의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반제반파쑈통일전선운동의 위대한 선구자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1935년 7월 모스크바에서는 국제공산당 제7차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는 로동계급의 통일단결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파쑈인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였다.

국제공산당 7차대회는 국제공산당의 마지막대회였다.

그 이후에 국제반파쑈통일전선운동은 더욱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아시아 및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련이어 출현하였으며 그 당들은 자기 나라 혁명을 옳게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었다. 그리고 매개 나라의 혁명력량도 강화되였다. 또한 매개 나라의 혁명임무와 실정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매개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실태는 공산주의운동안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국제공산당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1943년 5월 국제공산당은 자기의 해산을 선포하였다.

제11절. 에스빠냐공민전쟁

1. 공민전쟁의 시작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자본주의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에스빠냐에서도 파쑈화의 위험이 커감에 따라 반파쑈인민전선운동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에스빠냐공산당은 1934년 10월 파쑈분자들이 파쑈독재정권을 수립하려고 하자 그를 반대하여 로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폭동을 조직지도하였다.

그러나 10월폭동은 나라의 모든 반파쑈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에스빠냐공산당은 국제공산당 7차대회결정을 받들고 모든 반파쑈력량의 단결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1936년 1월 여러 반파쑈정당단체들을 련합하여 반파쑈인민전선을 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반파쑈인민전선은 그해 2월에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고 에스빠냐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전선정부를 세웠다.

에스빠냐공화국이 수립되자 에스빠냐의 식민지인 마로끄에서 이 소식을 들은 프랑꼬를 우두머리로 하는 파쑈장교집단은 인민전선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에스빠냐국내에로 진격해들어왔다.

이리하여 에스빠냐에서는 공민전쟁이 일어나게 되였다. 반란이 일어나자 파쑈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는 프랑꼬도당을 지지하면서 30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도 앞에서는 《중립》, 《불간섭》을 떠들었지만 뒤에서는 에스빠냐공화국을 무너뜨리려고 프랑꼬도당에게 수많은 무기와 군수물자들을 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에스빠냐내전은 파쑈들의 로골적인 무력간섭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성격을 띤 열전으로 번지기 시작하였다.》

국내외의 파시즘세력과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으로 인하여 에스빠냐공민전쟁은 국제적인 성격을 띤 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하였다.

국제공산당의 호소에 따라 세계 54개 나라에서 3만 5천명의 지원병들이 에스빠냐인민들과 어깨겯고 싸우기 위하여 에스빠냐전선으로 달려갔다.

파쑈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의 지원밑에 프랑꼬반란군은 1936년 10월 중순 수도 마드리드에 기여들었다. 이리하여 마드리드를 방위하기 위한 전투가 가렬하게 벌어졌다.

지원병들은 주로 민족별, 지역별로 7개의 국제려단을 조직하고 공군, 포병대, 기병대, 공병부대, 위생부대에서 에스빠냐인민과 함께 싸웠다.

에스빠냐공민전쟁에서 나라와 민족이 다른 5 000여명의 국제주의전사들이 세계혁명위업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서슴없이 바쳤다.

국제지원병들은 필사적인 방어전투를 벌려 파쑈분자들과 무력간섭자들의 마드리드공격을 끝내 좌절시켰다.

2. 공민전쟁의 실패

공민전쟁 전 과정에서 결정적역할을 담당수행한것은 공산당원들이였다. 공산당은 인민전선정부에서 소수를 차지하였으나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기세에 의거하여 마드리드전투이후에 토지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혁명적개혁들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 공산당의 력량은 급속히 장성강화되고 그 위신은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더욱 높아졌다.

공산당의 령도밑에 에스빠냐인민전선정부가 더욱 강화되게 되자 미국,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1938년에 들어서면서 에스빠냐혁명에 로골적으로 간섭해나섰다.

미국,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1938년 7월 제놈들이 만들어낸 《불간섭위원회》를 통하여 《에스빠냐에서 외국지원병을 소환

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이것을 에스빠냐인민전선정부에 강요하였다.

그리고 이 결정을 채택한것은 에스빠냐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없애고 에스빠냐문제는 에스빠냐사람들자신이 결정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이것은 교활한 기만책동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외국지원병소환》을 통하여 쏘련을 비롯한 각국의 지원병들만 철수시켜놓고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파쑈무력간섭자들이 에스빠냐혁명을 쉽게 진압할수 있게 조건을 마련해주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빠냐인민전선정부는 《불간섭위원회》에 환상을 가지고 그의 요구를 조급하게 받아들이였다.

1938년 10월 국제려단들은 에스빠냐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나 도이췰란드, 이딸리아파쑈무력간섭자들은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간섭을 더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불간섭》이라는 구실을 걸고 못본체 하였다.

공산당은 이러한 정세하에서 의용군을 대대적으로 모집하여 전선으로 출동시켰다. 공산당의 호소를 받들고 공화국군대와 인민들은 용감하게 싸웠으나 너무도 력량상차이가 컸기때문에 이길수 없었다.

파쑈반란자들은 공화국정부군에 비하여 각종 포와 땅크는 10배, 비행기는 16배, 고사포는 50배나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잘 훈련되지 못한 공화국정부군은 파쑈반란자들의 무력을 막아낼수 없었다.

수도 마드리드는 점차 적들의 포위속에 들어갔다.

정세가 위급하게 되자 인민전선정부안의 사회당우파들은 반혁명적음모를 꾸미였으며 간첩파괴분자들은 로골적으로 준동하기 시작하였다.

갓 창건된 공화국이 이처럼 곤난한 처지에 놓여있을 때 영제국주의자들은 순양함을 동원하여 무력간섭을 하였다.

또한 영제국주의자들은 인민전선정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프랑꼬파쑈《정부》를 《합법적》정부로 승인하였다.

혁명이 간고해지자 우익사회주의자들과 혁명의 변절자들은 1939

년 3월초에 반혁명적정변을 일으킨 다음《국방위원회》라는 군사파쑈정권을 세웠다.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탄압에로 넘어가 수백명의 공산당원들을 체포학살하는 반혁명적배신행위까지 감행하였다.

반혁명분자들은 3월말에 프랑꼬도당에게 항복을 선포하고 수도까지 내주었다.

이리하여 에스빠냐공민전쟁은 실패하고 인민전선정부는 종말하였으며 에스빠냐에는 프랑꼬정권이 수립되였다.

제2장. 파쑈국가들의 출현, 대외침략

제1절. 이딸리아에서 파쑈정권의 수립, 에티오피아정복

1. 무쏠리니파쑈정부의 수립

제1차 세계대전후 이딸리아제국주의는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갔다. 전쟁으로 하여 시달린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1921년에는 공산당이 창건되였으며 그 대렬은 나날이 늘어났다.

반면에 이딸리아반동세력은 약화되였다.

이딸리아의 경제도 전쟁의 피해를 입은데다가 전후에 시작된 1920년－1921년 경제공황으로 하여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갔다.

경제공황으로 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 은행과 주식회사들이 무리로 파산되였다. 게다가 이딸리아제국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시기 단 하나의 식민지도 쟁탈하지 못하였다.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된 이딸리아제국주의는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쏘베트로씨야와 통상관계까지 맺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극복되지 않았다. 이딸리아통치배들은 파국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파쑈독재를 세우려고 책동하였다.

이딸리아파시즘의 우두머리는 무쏠리니였다. 무쏠리니는 1919년 3월 이딸리아북부의 밀라노에서 반동적인 장교들과 지주, 자본

가들의 자식들을 규합하여 파쑈적인《이딸리아전투자단》을 조직하였다. 그후 무쏠리니는《이딸리아전투자단》의 이름을《국민파시스트당》이라고 고쳤다.

이때부터《단체》또는《단》,《결사》라는 뜻으로 쓰이던《파쑈》라는 단어가 파시즘이라는 반동적인 정치사조를 의미하는 술어로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무쏠리니는 기만적인 선전으로 많은 사람들을 파시즘신봉자로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반동정부와 대부르죠아지들로부터 자금과 무기를 받아《파시스트행동대》라는 테로단체까지 만들어냈다.

그때 파시스트행동대원들이 검은 샤쯔를 입었다고 하여 이 테로단체를《흑샤쯔부대》라고 불렀다.

무쏠리니는 공산당이 창건되자《흑샤쯔부대》를 동원하여 공산당원들과 진보적인사들에 대한 테로를 공개적으로 감행하였다.

그리고 국회선거에까지 출마하여 국회안에서 수십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시기 해외침략을 위하여 국내에서 파쑈정권의 수립을 요구해나선 대독점자본가들은 무쏠리니를 파쑈독재수립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더 많은 자금과 무기를 대주면서 정권장악에로 부추겼다.

무쏠리니는 파쑈테로단체를 통하여 밀라노를 비롯한 많은 지역과 도시를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독점자본가들은 국왕에게 무쏠리니를 수상으로 임명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이렇게 되여 1922년 10월 무쏠리니는 독점자본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수상으로 임명되였다.

무쏠리니는 정권을 잡자마자 수상자리를 비롯하여 외무상, 내무상, 륙해공군상, 식민지상, 로동상 등 많은 상자리들을 독차지하고 파쑈독재자로서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리하여 제국주의나라들가운데서 제일먼저 이딸리아에 반동적인 파쑈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2. 파쑈이딸리아의 에티오피아정복

무쏠리니파쑈도당은 파쑈독재정권을 세운 다음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하여 대외침략을 미친듯이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무쏠리니파쑈도당은 대외침략을 통해 고대로마제국과 같은 《대식민지제국》을 만들어 지중해를 이딸리아의 《호수》로 되게 하겠다는 어리석은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파쑈이딸리아의 에티오피아정복은 제2차 세계대전발발의 위험신호로 되였습니다.》

파쑈이딸리아의 대외침략은 에티오피아에 대한 침략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이딸리아침략자들은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1934년부터 에티오피아의 국경을 침범하는 도발사건을 련이어 조작하였다.

파쑈이딸리아의 침략위험이 커지자 에티오피아지배층은 미제에게 환상을 가지고 미국정부에 국경충돌사건을 조정해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불간섭》이라는 구실밑에 에티오피아정부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딸리아침략자들에게 막대한 군수물자를 넘겨줌으로써 그들의 에티오피아침략을 도와주었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파쑈이딸리아는 1935년 10월 수십만의 대병력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에티오피아인민은 파쑈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항전에 일떠섰다.

침략자들은 수적기술적우세에도 불구하고 1936년 5월에 가서야 겨우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를 점령할수 있었다.

파쑈이딸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이딸리아에 병합하고 수많은 침략무력을 이 나라에 끌어들였다. 그리고 《총독》을 파견하여 무제한한 식민지폭압과 략탈책동을 감행하였다.

파쑈이딸리아의 에티오피아정복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 파쑈독재자 무쏠리니의 운명

이딸리아에서 파쑈독재를 수립한 무쏠리니는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면서 도이췰란드, 일본 등 나라들과 파쑈쁠럭을 형성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1943년에 이르러 무쏠리니파쑈독재는 인민들의 반파쑈무장투쟁으로 하여 파멸에 처하게 되였다. 이러한 때 미국, 영국련합군대가 씨칠리아섬에 상륙하여 이딸리아본토침략을 개시하였다. 그러자 이딸리아의 독점자본가들과 국왕, 군부우두머리들은 인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는것을 막고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쏠리니의 파멸을 선포하고 그를 감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자기 졸개들을 보내여 무쏠리니를 구출한 다음 도이췰란드강점지역인 북부이딸리아에 다시 무쏠리니정권을 세웠다. 그러나 무쏠리니의 운명은 더 오래 갈수 없었다. 파쑈도이췰란드군대가 패주할 때 그를 따라 도주하던 무쏠리니는 유격대에 체포되였다.

유격대와 인민들은 파쑈독재자 무쏠리니를 총살한 다음 그의 시체를 밀라노광장에 거꾸로 매달아놓았다.

제2절. 히틀러의 정권장악, 《국회의사당방화사건》

1. 히틀러의 정권장악

이딸리아에서 무쏠리니독재정권이 수립된 후 두번째로 파쑈독재정권을 수립한자는 도이췰란드의 아돌프 히틀러였다.

히틀러는 1919년 1월 반동분자들을 긁어모아 뮨헨에서 《민족사회주의로동자당》(나치스당)을 조직하고 정권을 쥐기 위한 기만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히틀러도당은 나치스당이 정권을 쥐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잃어버린 령토를 되찾을것이라고 하면서 복수주의를 선전하였다. 그리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로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겠다는 거짓말

을 늘어놓았다. 또한 히틀러는 흉악한 인종론을 들고나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도이췰란드민족이 마땅히 세계를 지배하여야 한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교활한 히틀러는 이러한 기만선전으로 각성되지 못한 근로자들을 자기 당에 끌어들일수 있었으며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려는 독점자본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었다.

히틀러는 자기의 세력을 늘인 다음 1923년 정권을 쥐기 위한 파쑈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감옥》에 잡혀들어갔으나 독점자본가들의 지원을 받아 9월말에 놓여나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독일의 대독점자본가들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위기의 출로를 파쑈화에서 찾으면서 정권을 히틀러에게 넘겨주었으며 그를 저들의 대리인으로, 앞잡이로 리용하였습니다.》

도이췰란드의 독점자본가들은 1929년부터 파국적인 경제공황이 들이닥치자 그 출로를 극악한 파쑈테로통치와 대외침략을 실시하는데서 찾았다.

히틀러는 대독점자본가들과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를 받아 선거에서 다수표를 쥠으로써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였다.

1932년 4월 도이췰란드에서 선거가 진행되였다.

공산당은 선거에서 히틀러세력을 누르기 위하여 사회당에 련합할것을 제기하였으나 우익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다나니 결국 히틀러의 나치스당이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1933년 1월 대통령 힌덴부르그는 히틀러에게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것을 위임하였다.

이리하여 도이췰란드에서는 히틀러를 수상으로 하는 극악한 파쑈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히틀러도당은 정권을 장악한 후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대통령 힌덴부르그가 죽자 대통령제를 없애고 도이췰란드를 《제3제국》으로, 자기를 제국의 《총통》으로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히틀러는 모든 국가권력을 독차지한 흉악한 독재자가 되였다.

2. 《국회의사당방화사건》

히틀러는 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충실한 졸개인 게링그와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하였다.

1933년 2월 히틀러의 지시를 받은 게링그는 나치스당의 졸개들을 시켜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게 하고는 파렴치하게도 그 《죄》를 공산당에 들씌웠다.

그리고 이미 작성해놓았던 공산당원명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검거선풍을 일으키고 도이췰란드공산당 지도자 텔만을 비롯한 1만여명의 공산당원들을 마구 체포하거나 처형하였다.

지어는 당시 국제공산당의 위임을 받고 도이췰란드공산당을 수습하기 위하여 여기에 와있던 벌가리아공산당 지도자이며 국제로동운동활동가인 지미뜨로브까지 잡아가두었다.

공산당의 활동을 금지시킨 히틀러도당은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도 해산하고 나치스당 하나만을 놔두었다.

히틀러도당은 1933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라이프찌히에서 지미뜨로브를《국회의사당방화사건》의 주모자로 몰기 위한 공판을 벌려놓았다. 히틀러도당은 이 《공판》놀음을 통하여 국회의사당이 불탄 죄를 공산당에 들씌워 공산당을 비법화한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미뜨로브는 재판정에서 국회의사당을 불사른것은 공산당원이 아니라 히틀러도당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감행된것이라고 까밝혔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파시즘과 전쟁을 반대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벌릴것을 도이췰란드인민들과 전세계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지미뜨로브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의 견결한 투쟁과 전세계로동계급의 강력한 압력에 못이겨 히틀러도당은 지미뜨로브를 무죄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히틀러도당은《공판》놀음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를 만회하며 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정부적감정을 억누르기 위하여 공산당원들을 비롯한 혁명력량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파쑈사상을 강제로 주입시키는 한편 모든 진보적서적들을 불태워버렸으며 5 000여명의 과학자,

예술가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국외로 내쫓았다.

또한 히틀러도당은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였다.

놈들은《빠다대신에 대포를!》이라는 반인민적이며 침략적인 구호를 내걸고 생활필수품생산을 극력 제한하면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전쟁준비에 복종하도록 하였다.

히틀러파쑈통치밑에서 도이췰란드는 하나의 커다란 감옥으로 전변되였으며 새로운 세계대전의 발원지로 되였다.

※ 지미뜨로브

게오르기 미하일로비치 지미뜨로브(1882－1949)는 벌가리아의 어느 한 촌에 있는 가난한 로동자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가난한탓으로 소학교를 중퇴하고 로동자로 일하던 그는 20살 되던 해에 벌가리아사회민주로동당에 입당하여 혁명활동을 벌렸다. 로동계급속에서 단련된 지미뜨로브는 당내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언제나 앞장섰으며 로동자들속에서 신망이 높았다. 그로 하여 1909년에는 협소파 사회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혁명적인 로조통일동맹 비서로까지 되였으며 협소파가 공산당으로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후에는 국제공산당에 가입하여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위원으로까지 되였다. 1923년에 벌가리아에 수립된 파쑈정부를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지도한것으로 하여 사형을 언도받게 되자 해외로 망명하여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에서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던중 도이췰란드에 들어갔다가《국회의사당방화사건》으로 체포되였으며 감옥에서 견결한 투쟁을 벌려 석방된 후 1934년 2월에 쏘련으로 갔다. 지미뜨로브는 이러한 공적으로 하여 그후에는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총비서로 사업하게 되였다. 그는 국제공산당 제7차대회를 지도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정부총리로, 공산당총비서로 사업하다가 1949년 7월 장기간의 중환끝에 사망하였다.

제3절. 《9.18사변》, 일본《천황》제파쑈독재정권의 수립

1. 《9.18사변》

1929년부터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세계경제공황의 파도가 일본에도 미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공황이 들이닥치자 나라안에서 파쑈적폭압과 수탈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대륙 특히 만주에 대한 침략에 미쳐날뛰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만주는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내놓고 말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였다.

전쟁준비를 끝마친 일제는 무력침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모략극을 꾸미였다.

일제의 관동군우두머리들은 심양부근의 류조구에서 관동군관할지역에 있는 철길을 제 손으로 폭파한 후 그 책임을 중국군대에 뒤집어씌우고 하루밤사이에 중국동북군사령부가 있는 심양을 점령하며 이어서 전 만주를 강점할데 대한 흉계를 꾸미였다.

1931년 9월 18일 일제는 철길을 폭파할 인원들을 류조구철길주변에 매복시키고 철길폭파의 책임을 중국측에 넘겨씌우기 위하여 미리 폭파지점에 파편쪼각들까지 가져다놓았다. 밤 10시 20분경 중국사람으로 변장한 폭파수들이 류조구철길을 폭파하였다. 그로부터 10분후 대기하고있던 일제침략군부대들에 일본이 관리하는 철길을 중국군대가 폭파했으니 즉시에 심양성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일제침략군은 공격을 개시한지 한시간만에 장학량의 동북군주력이 집결되여있던 북대영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9.18사변》은 일제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꾸며지고 도발된 사건이였다. 그러나 일제는 사건의 진상을 가리워보려고 중국측에 철도를 《폭파》하다가 죽었다는 2명의 중국사람의 시체와 파편쪼각들을 내보이는 비렬한 행위를 하였다.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폭파지점을 통과한 렬차는 정시에 심양역에 도착하였으며 중국군대와 일본군대가 싸우다가 중국사람이 죽

었다는것은 누구도 본 사람이 없었다. 때문에 심양에 주재하는 일본 총령사라는 놈도 본국에 있는 외무상에게 극비밀리에 보낸 전보문에서 《이번의 사건은 전적으로 군부의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일제는 심양을 점령한 후 여기로 일제《관동군》사령부를 옮겨왔다.

《9.18사변》을 조작한 일제는 《관동군》과 조선주둔 일제침략군을 총동원하여 1932년 2월까지 전 만주땅을 강점하였다.

만주를 점령한 일제는 멸망한 청나라의 마지막황제였던 부의를 내세워 1932년 3월 괴뢰《만주국》을 꾸며냈다.

2. 《천황》제파쑈독재정권의 수립

세계경제공황을 전후한 시기 일본에서도 파쑈세력이 머리를 쳐들고 준동하기 시작하였다. 군부안의 파쑈분자들은 《사꾸라회》, 《혈맹단》 등 여러 파쑈단체들을 조직하고 군부파쑈정권을 세우기 위한 반란들을 여러차례 일으켰다. 반란들은 실패하였으나 국가 《반역죄》를 지은 파쑈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 그것은 파쑈정권수립을 요구하는 독점자본가들과 군부안의 우익상층들의 비호가 있었기때문이였다.

일본의 파쑈분자들은 도이췰란드나 이딸리아에서 파쑈두목이 정권을 독차지한것과는 달리 《천황》을 우두머리로 내세우고 그를 리용하여 군부가 정권을 타고앉아 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는《천황》제파쑈독재정권을 세우려고 책동하였다.

일본의 파쑈분자들이 《천황》을 내세운것은 일본에서 《천황》이 틀어쥐고있는 절대적인 권력과 각성되지 못한 인민들의 《천황》에 대한 환상을 리용하여 나라의 파쑈화를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음흉한 속심에서 나온것이였다.

또한 군부가 직접 정권을 잡을 야심을 품게 된것은 일제의 대외침략이 확대되면서 일본통치계에서 군부의 지위가 현저히 강화되였기때문이였다.

《9.18사변》이 일어나자 군부안의 파쑈분자들은 하루빨리 군사파쑈정권을 세우고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또다시 여러차례의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이 시기 군부안에는 정권을 탐내는 파쑈장교들로서 황도파, 통제파 등의 음모집단들이 형성되였으며 저마다 정권을 쥐려고 날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황도파와 통제파의 대립으로 나타난 일본군부계층들간의 알륵의 산물로 평가되고있는 〈2.26사건〉은 일본에서의 파쑈화, 군부독재에 의한 군국주의체계확립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를 실증해주고있었다.》

일본에서 《천황》제 파쑈독재정권수립의 중요한 계기로 된것은 《2.26사건》이였다. 1936년 2월 26일 1 000여명의 황도파 파쑈반란자들은 수상이하 여러 대신들의 집을 습격하여 내무대신을 비롯하여 3명의 대신들을 죽이거나 중상을 입혔다.

《천황》제파시즘의 출현

반란자들은 또한 경시청, 륙군청, 참모본부, 륙군관저를 습격하고 이른바 《일본정계의 심장부》를 제압하였다.

그다음 반란자들은 도꾜중심지역을 3일간 장악하고 황도파중심의 파쑈정권을 세우려고 시도하다가 군부의 일치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실현하지 못하였다.

1936년 3월 극악한 반공분자이며 파쑈분자인 히로다를 수상으로 하는 새 내각이 조직되였다.

이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는 군부세력이 차지하였다.

이리하여 《2.26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군부가 직접 정권을 가로타고앉아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천황》제파쑈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1930년대 후반기로부터 일본은 군부파쑈테로통치가 지배하는 암흑천지로 변하였다.

히로다반동정부는《방공》의 간판밑에 유럽의 파쑈세력들인 히틀러와 무쏠리니도당들과 악명높은 《방공협정》을 체결하였다.

동서방의 파쑈세력들이 서로 결탁되자 일제는 중일전쟁도발준비를 최종단계에서 다그쳤다.

제4절. 중일전쟁의 도발, 하싼호, 할힌골사건

1. 중일전쟁의 도발, 전쟁의 장기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노에내각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의 〈불간섭〉 정책을 교묘하게 리용하면서 중국내부에 아직 항일민족통일전선이 확고히 성립되지 못하고있던 유리한 기회를 타서 마침내 중국에 대한 전면전쟁을 도발하였다.》

일제는 만주를 강점한 후 전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군대가 주둔하고있던 로구교부근에 침략군대를 비법적으로 주둔시켰다.

베이징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정도 가면 영정하라는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의 동쪽건너편에 로구교라는 철도역이 있다. 이 철도역은 북녕철도(베이징－녕파)와 경한철도(베이징－한구)가 교차되는 곳에 위치하고있는 중요한 곳이였다.

때문에 일제는 로구교를 장악하고 철도를 리용하여 사방으로 침략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1937년 7월 7일 밤 로구교일대의 일제침략군부대들은 《야간훈련》이라는 구실을 걸고 중국군대가 차지하고있는 지역에까지 침입하였다.

그리고 훈련도중에 저들의 병사 한명이 중국군대의 사격을 받

아 중국군대관할지역으로 없어졌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이면서 중국군대관할지역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나섰다.

중국군대가 이를 저지시키려하자 일제침략군은 저들의 병사를 감추어두었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중국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중일전쟁도발은 이렇게 감행되였다. 이를《로구교사건》혹은 《7.7사변》이라고 한다.

일제의 무력침공이 개시되자 장개석도당은《로구교사건》의 책임에 대하여 사죄하면서 일제침략군에 정전을 제기하였다.

일제는 침략무력을 총동원하여 베이징을 손쉽게 점령한 후 상해, 천진, 남경, 광주 등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넓은 령토를 강점하였다.

장개석도당은 제놈이 도사리고있던 남경이 일제침략군에게 점령되자 할수없이 일제와의 정전을 취소하고 로농홍군과 공동으로 항일하는데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후 로농홍군은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재편성되여 항일전쟁에 참가하게 되였다.

장강이남의 로농홍군은 신4군으로 되였다.

장개석군대는 비겁하게 도망쳤으나 공산당의 령도밑에 8로군과 신4군은 일제를 반대하는 최전선에 나서서 피를 흘리며 용감하게 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로 하여금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배후교란작전을 맹렬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적배후교란작전은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군사정치적타격을 가함으로써 항일전쟁에 일떠선 중국인민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중국을 순식간에 먹어보려던 일제의 《속전속결》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때부터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규모적인 군사작전을 하지 못하고 일련의 소규모적인 작전만을 진행하였다.

2. 하싼호, 할힌골사건

일제는 중일전쟁이 장기성을 띠게 되자 중국에서 쏘련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일제는 장성강화된 쏘련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단번에 쏘련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수 없었다. 교활한 일제는 조심스럽게 쏘련의 원동무력상태를 타진해본 다음 점차 침략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1938년 7월에 쏘련의 하싼호지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쏘련군대의 드센 반격을 받아 무력침공을 개시한지 한달도 못되여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하싼호사건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또다시 쏘련을 침공하기 위하여 할힌골지역에 1만 5천여명의 침략군을 집결시키고 침략의 기회만 엿보았다.

일제는 할힌골을 침공하면서 쏘련이 동맹국가인 몽골을 지원하는 기회에 쏘련의 힘을 가늠해보며 나아가서는 몽골을 거쳐 쏘련의 바이깔호지역까지 점령함으로써 씨비리철도를 차단하여 쏘련의 원동지방을 떼내려고 망상하였다.

일제침략군은 1939년 5월 중순 700여명의 몽골인민군기병이 하루하강을 건늘 때 이를 《국경침범》이라는 생트집을 걸면서 위만군을 내몰아 몽골국경수비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할힌골에서 일제의 무력침공이 감행되자 쏘련군대는 쏘련과 몽골사이에 맺어진 호상원조조약에 따라 전투에 참가하였다.

일제침략군은 쏘몽군대의 반격을 받아 많은 주검을 내고 퇴각하였다.

악에 받친 일제는 다시 7만여명의 대병력을 할힌골지역에 몰아넣고 쏘몽군대의 방어선을 돌파해보려고 미친듯이 덤벼들었다.

적들에 대한 반공격준비를 갖춘 쏘몽군대는 8월 하순에 강력한 반공격전을 벌려 10여일동안에 일제침략군 5만 5천여명을 소멸하고 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냈다.

할힌골사건이 일어나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일제침략군의 배후를 련이어 타격함

으로써 쏘몽련합군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싼호와 할힌골에서 일제의 대참패는 일제가 준비하고있던 쏘련침략이 전혀 승산이 없는 위험한 책동이라는것을 침략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第5절. 《뮨헨공모》, 파쑈도이칠란드의 뽈스까침공사건

1. 《뮨헨공모》

히틀러파쑈도당은 무쏠리니도당과 함께 에스빠냐공민전쟁에 대한 무장간섭을 한 다음 본격적인 대외침략에 달라붙었다.

파쑈도이칠란드의 대외침략 첫 대상은 오스트리아였다. 히틀러도당은 오스트리아는 같은 게르만족이기때문에 도이칠란드에 합쳐야 한다고 줴치면서 순식간에 《제3제국》에 《병합》해버렸다.

이어서 히틀러도당은 체스꼬슬로벤스꼬를 강점하는데 달라붙었다.

체스꼬슬로벤스꼬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히틀러도당은 슈제트지방에서 살고있는 도이칠란드인들을 부추겨 국회에서 슈제트지방의 완전한 자치를 들고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에 슈제트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리하여 파쑈도이칠란드와 체스꼬슬로벤스꼬사이의 관계는 극도로 긴장하게 되였고 히틀러도당의 침략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쏘련, 프랑스와 동맹조약을 맺고있었다. 그러나 체스꼬슬로벤스꼬지배층은 파쑈도이칠란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데 인민들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쏘련에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도이칠란드와 공모하는 영국과 프랑스에 기대를 걸면서 그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주리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직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쁠럭은 자본주의포위속에서 나날이 장성강화되고있는 쏘련의 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파쑈독일의 침략행동을 용인하며 그앞에 굴복하는 비렬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쏘련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히틀러파쑈도당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먹고 하루빨리 쏘련에로 침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쑈도이췰란드의 침공을 지지하여나섰다.

특히 미제는 슈제트문제를 평화적으로《조정》한다는 구실을 걸고 1938년 9월 도이췰란드의 뮨헨에서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의 두목들이 참가하는 4개국수뇌자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이때 미제는 회의장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뒤에서 회의가 히틀러도당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조종하였다.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동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췰란드를 쏘련침공에로 내몰려는 흉악한 목적밑에 자기 동맹국을 희생시키면서 파쑈도이췰란드의 강도적 요구를 순순히 접수하였다.

회의끝에 10일이내에 슈제트를 파쑈도이췰란드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강도적이고 배신적인 《뮨헨협정》이 꾸며졌다.

동맹국들에 기대를 걸고있던 체스꼬슬로벤스꼬는 할수없이 슈제트지방을 내놓지 않을수 없었다.

슈제트지방을 강점한 히틀러도당은 1939년 3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통치배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총 한방 쏘지 않고 이 나라를 강점해버렸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해낸 악명높은 《뮨헨협정》은 결국 파쑈도이췰란드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게 하였고 세계의 수많은 인민들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게 하였다.

2. 파쑈도이췰란드의 뽈스까침공사건

오스트리아와 체스꼬슬로벤스꼬를 강점한 후 더욱 기세등등해진 히틀러도당은 계속해서 뽈스까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쏘련의 위력에 겁을 먹고있던 히틀러도당은 뽈스까침공에 앞서 쏘련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앞으로 틀림없이 파쑈도이췰란드가 침략해오리라고 예견하고있던 쏘련은 국방력강화에 요구되는 시간적여유를 얻으려고 도이췰란

드의 제의를 받아들이였다.

1939년 8월 10년을 기한으로 한 쏘도불가침조약이 맺어졌다.

이리하여 파쑈도이췰란드의 침략무력이 점점 쏘련국경가까이로 다가가는것을 보고 모든 일이 제놈들의 뜻대로 되여간다고 만족해하던 미국,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깨여지고말았다.

도이췰란드의 침략적야망을 더욱 조장시킨 뮨헨협정

그러나 미, 영, 프제국주의자들은 그래도 히틀러도당이 쏘련을 공격할것이라는 미련을 가지고 파쑈도이췰란드의 침략책동을 계속 묵인해주었다.

히틀러도당은 미국,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믿음》을 역리용하면서 뽈스까침공날자를 1939년 9월로 정하고 모든 준비를 다그쳐나갔다.

히틀러도당은 뽈스까침공준비가 끝나자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사건을 조작해냈다.

1939년 8월말 히틀러는 제놈의 졸개들에게 비밀지령을 주어 비밀경찰들과 도이췰란드감옥에서 끌어낸 수십명의 죄수들에게 뽈스까군복을 입히도록 한 다음 비밀경찰들이 뽈스까군복을 입은 죄수들을 독약을 써서 죽이게 하였다.

그리고 독살된 죄수들의 몸에 총을 쏘아 상처자리들을 내게 하고 그 시체들을 도이췰란드국경도시(클레이비쩨)에 있는 방송국주변에 가져다놓게 하였다.

뒤이어 뽈스까군복을 입은 도이췰란드비밀경찰놈들이 방송국을 《점령》하는 연극을 놀았다. 그리고 뽈스까말로 시민들에게 파쑈원

쑤들을 복수하자고 《호소》한 다음 총소리까지 내고 사라져버렸다.

이 사건을 꾸며낸 다음 히틀러도당은 뽈스까가 도이췰란드에 침략도발을 했다고 떠들면서 외국기자들까지 초청하여 《사건현장》을 돌아보도록 하였다.

이렇게 교활한 방법으로 뽈스까침공의 구실을 마련한 히틀러도당은 도이췰란드군에 뽈스까에로의 총공격명령을 내리였다.

제3장. 제2차 세계대전

제1절.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 프랑스의 항복

1.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

파쑈도이췰란드는 1939년 9월 1일 뽈스까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였다.

파쑈도이췰란드는 2 500대의 땅크와 2 000대의 비행기를 포함한 58개 사단의 병력으로 뽈스까를 불의에 공격하였다.

이 시기 뽈스까는 30만의 군대를 가지고있었으나 그 대부분이 쏘련과의 국경지대에 배치되여있었고 서부전선은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었다.

전쟁이 터지자 뽈스까와 군사동맹관계에 있었던 영국, 프랑스와 그의 식민지들인 인디아, 카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가 도이췰란드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은 두개의 제국주의집단간에 식민지를 다시 분할하여 가지기 위한 제국주의전쟁으로 시작되였다.

전쟁이 시작되였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1개 사단의 병력도 뽈스까에 파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여 불충분하게 무장한 뽈스까군대는 도이췰란드의 침략을 막지 못했다. 1939년 9월 28일 뽈스까는 점령되였으며 부패무능한 뽈스까반동통치배들은 수도 와르샤와가 함락되기 전에 외국으로 도망쳤다.

제2차 세계대전도

파쑈도이췰란드가 뽈스까를 점령한 후 1940년 봄까지 약 7개월동안 도이췰란드와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간에는 아무러한 군사행동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전쟁상태에 대하여 《이상한 전쟁》이라고 하였다.

《이상한 전쟁》상태가 조성되게 된것은 도이췰란드가 영국과 프랑스와 《평화회담》을 벌려놓고 쏘련을 공격하려는듯 한 눈치를 보이면서 그들을 안심시켜놓고는 뒤에서 영국, 프랑스를 타격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한데 있었다.

이 시기 쏘련인민도 날로 격화되여가고있는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나갔다.

히틀러도당은 쏘련을 공격할수 없다고 단정하고 프랑스를 공격하려는 속심밑에 1940년 4월 중립국인 단마르크와 노르웨이를 강점하였다.

이때까지도 프랑스는 도이췰란드가 자기를 치겠는가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도이췰란드와 《반쏘》타협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때에 히틀러도당은 갑자기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2. 프랑스의 항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파쑈독일은 뽈스까를 침략한데 뒤이어 여러 구라파나라들을 강점하였으며 얼마전에는 프랑스를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1940년 5월 파쑈도이췰란드는 136개 사단의 병력으로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도이췰란드군은 룩셈부르그, 네데를란드, 벨지끄를 손쉽게 점령하고 프랑스공격에 착수하였다.

이때까지도 프랑스는《금성철벽》이라고 하던《마지노선》을 믿고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프랑스는 도이췰란드의 공격을 예견하여 이곳을 20만명의 병력으로 방어하게 하였다.

그러나 도이췰란드군이 마지노선을 에돌아 프랑스북부로 들이침으로써 덩께르끄지역으로 몰리여 도이췰란드군에 완전히 포위되였다.

오도가도 할수 없게 된 영국, 프랑스군대는 선박들을 동원하다못해 개인용유람선까지 리용하여 영국으로 쫓겨갔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수만명의 영국, 프랑스군이 죽고 4만명의 프랑스군이 도이췰란드군에게 포로되였다.

이어서 도이췰란드군대는 프랑스의 수도 빠리를 공격하였다.

이때 파쑈이딸리아군대가 여기에 합세하였다.

바빠맞은 프랑스통치배들은 파쑈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울데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빠리를 도이췰란드군에 내주고 남부지방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6월 22일 파쑈도이췰란드앞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프랑스를 강점한 후 파쑈도이췰란드는 로므니아, 마쟈르(이전 웽그리아), 벌가리아, 그리스(이전 희랍), 이전 유고슬라비아를 련이어 공격하였다. 이리하여 파쑈도이췰란드는 서유럽으로부터 북유럽, 발칸반도에 이르는 14개 나라의 넓은 지역을 강점하게 되였다.

유럽을 강점한 파쑈도이췰란드는 이 지역에 파쑈제도를 수립하

고 집단수용소와 살인《공장》들을 건설하여 대학살을 감행하는 한편 공업원료, 식료품, 예술작품들을 모조리 략탈하여갔다. 그리고 다음 침략방향을 쏘련으로 정하고 반쏘침략준비를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 《마지노선》

《마지노선》은 프랑스륙군상 마지노의 제의에 따라 프랑스가 도이췰란드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국경지역에 1929년부터 1934년 기간에 축성한 약 380km에 달하는 방어체계를 말한다.《마지노선》에는 520문의 포, 3 200정의 기관총과 기타 1 800정의 무기를 설치한 약 5 600개의 영구화력시설들이 건설되였다. 1936년－1940년에 《마지노선》을 북해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길이 620km의 《달라지에선》이 건설되였으나 완공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후 파쑈도이췰란드군이 《마지노선》을 배후로 들이치자 이를 지키고있던 20만의 프랑스군은 방어선을 버리고 패주하였다. 그리하여 《마지노선》은 그 역할을 상실하였다.

제2절. 모스크바, 쓰딸린그라드격전

1. 쏘련－도이췰란드전쟁의 시작, 모스크바격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은근한 부추김을 받아온 파쑈독일은 몇달어간에 쏘련을 타승하겠다고 장담하면서 비행기와 땅크로 증강된 170개 사단의 대병력으로 쏘련에 대한 불의의 배신적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히틀러도당은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하면서 침략계획인 《바르바로스안》을 작성하였다.

히틀러는 도이췰란드에서 중세시기에 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해나섰던 바르바로스(프리드리히1세)황제가 실현하지 못한 도이췰란드의 침략야망을 자기가 쏘련을 침략함으로써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반쏘침략계획을 《바르바로스안》이라고 하였다.

쏘련에 대한 침략전쟁준비를 끝낸 히틀러도당은 1941년 6월 22

일 170개 사단의 병력을 동원하여 불의의 배신적침공을 감행하였다.

히틀러는 전쟁초기 침략방향을 3개로 정하고 《북방군》은 발뜨해연안과 레닌그라드(오늘의 싼크뜨 뻬쩨르부르그)를, 《중앙군》은 모스크바를, 《남방군》은 끼예브를 공격하게 하였다.

전쟁이 시작되여 첫 전투는 쏘련의 서부국경에 있는 군사적요충지인 브레스트에서 진행되였다.

이날 새벽 적정을 처음 발견한 직일병이 비상신호를 울렸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브레스트요새의 방위자들은 사면으로 포위된 속에서도 한달이상이나 결사전을 벌리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영웅적으로 싸웠다.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은 심한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면서 900일동안의 봉쇄속에서도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끝끝내 도시를 지켜냈다.

레닌그라드를 봉쇄한 도이췰란드침략군은 1941년 9월 오륙, 꾸르스크계선에서 모스크바를 향하여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히틀러는 어리석게도 쏘련의 힘을 얕잡으면서 《로씨야인들은 지금 마지막숨을 쉬고있다. 그들을 끝장내는데는 얼마간의 힘이 필요할뿐이다.》라고 지껄이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전쟁을 끝장내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일본제국주의와 파쑈도이췰란드, 파쑈이딸리아를 반쏘침략전쟁에로 부추기는 미제

모스크바공격에 파쑈도이췰란드는 1 700대의 땅크와 950대의 비행기를 포함한 75개 사단(약 100만명)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였다.

한편 쏘련군은 모스크바를 방위하기 위하여 782대의 땅크와 454대의 비행기를 가진 95개 사단(약 80만명)의 무력을 배치하였다.

모스크바시민들은 수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의용군을 조직하고 방어시설들을 구축하기 위한 결사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1941년 11월 6일과 7일 모스크바광장에서는 위대

한 사회주의10월혁명승리 24주년을 기념하는 보고대회와 붉은군대의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수도로부터 25km 밖에 적들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붉은군대의 열병식은 전체 쏘련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열병식에 참가한 쏘련군장병들은 그길로 전선으로 나가 적들과 싸웠다.

1941년 12월 쏘련군대는 드디여 반공격에로 넘어갔다.

반공격이 개시되여 불과 6시간동안에 쏘련군대는 파쑈도이췰란드군 3만명을 소멸하고 40일동안에는 30만명을 격멸하였다.

모스크바부근에서 파쑈도이췰란드군의 괴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쑈도이췰란드의 최초의 대패배였으며 히틀러가 내놓은 《전격전》침략계획의 총파산이였다.

※ 레닌그라드방위전투

레닌그라드방위전투는 1941년 8월부터 1944년 1월까지 900여일간 진행되였다. 8월 8일 레닌그라드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한 도이췰란드《북방군사령부》는 붉은군대와 레닌그라드인민들의 완강한 항전에 의하여 공격이 좌절되게 되자 도시에 있는 군대와 시민들을 질식시키기 위하여 레닌그라드시에 대한 봉쇄에 들어갔다. 그러나 히틀러도이췰란드군대는 레닌그라드봉쇄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심한 추위와 굶주림, 폭탄이 비발처럼 쏟아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레닌그라드의 방위자들은 빵을 구워냈고 땅크를 만들어냈으며 생산을 추켜올리였다. 온 세계의 부르죠아지들이 레닌그라드가 함락될것이라고 떠들던 1943년에 이 도시의 근로자들은 그 전해에 비해 더 높은 생산능률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의 불굴의 방위전투에 의하여 시민들을 질식시키려던 기도는 파탄되고 레닌그라드에 대한 도이췰란드군의 공격은 실패하였다.

2. 쓰딸린그라드격전

쏘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려던 파쑈도이췰란드의 망상은 깨여지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넘어가게 되였다.

모스크바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 히틀러는 볼가강과 돈강을 련결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쓰딸린그라드(볼고그라드)

쓰딸린그라드격전

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쏘련을 곡창지대와 원유, 석탄산지로부터 떼내여 약화시키고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였다.

1942년 7월 쓰딸린그라드에 대한 도이췰란드군의 공격이 시작되였다.

이 공격전투에 도이췰란드는 36개의 기계화사단을 동원하였다.

쏘련군대와 쓰딸린그라드주민들은 한치의 땅, 한채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싸웠다. 쓰딸린그라드뜨락또르공장 로동자들은 적들의 폭격과 포격이 감행되는 속에서도 하루에 100대이상의 땅크를 생산하여 전선에서 싸우는 군대에 보내주었다.

1942년 11월경에 쏘련군대는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강력한 포사격이 있은 후에 쏘련군대는 적을 량측에서 포위하였다.

이리하여 쏘련군대는 포위망에 든 33만명의 도이췰란드침략군가운데서 9만 1 000명을 포로하고 나머지는 전멸시켰으며 5 700문의 포와 수많은 땅크와 군수물자를 로획하거나 파괴하였다.

포로된 놈들중에는 악명높은 쏘련침략계획인 《바르바로스안》을 작성한 파울류스놈도 있었다.

쓰딸린그라드에서 참패를 당한 파쑈도이췰란드는 1943년 여름 세계전쟁사상 가장 큰 땅크전이 진행된 꾸르스크전투에서 다시한번 대참패를 당하였다.

이 전투에는 1 100대이상의 땅크와 자동포, 비행기들이 동원

되였다.

단 하루동안의 땅크전에서도 도이췰란드는 350대의 땅크와 1만명이상의 군대를 잃었다.

50여일간의 전투에서 도이췰란드는 7개의 땅크사단을 포함하여 50개 사단의 병력이 격멸당하였다.

이 전투를 통하여 쏘련군대는 전쟁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반공격에로 넘어가게 되였다.

제3절. 일제의 태평양전쟁도발과 일본군《위안부》만행

1. 태평양전쟁의 시작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파쑈도이췰란드에 의하여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고 대부분의 제국주의나라들이 전쟁에 말려들어가자 이 기회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독차지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침략계획인《대동아공영권》창설계획을 선포하고 그 실현을 위한 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일제는 이 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분간 쏘련과의 관계를《완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타산하고 1941년 4월 쏘련과 5년을 기한으로 하는《중립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웰남, 라오스, 캄보쟈를 침략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리하여 일제와 미, 영제국주의자들간에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배권문제를 놓고 대립이 격화되였다.

1941년 12월 일본《천황》놈이 참가한 일제두목들의 회의에서 일제는 미, 영, 네데를란드제국주의자들과 전쟁을 개시할것을 결정하였다.

일제는 동남아시아에서 영국, 네데를란드세력이 약화된 조건에서 미태평양함대의 기본기지였던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는 미해군기지를 불의에 타격하고 미국이 추서기 전에 다른 여러 지역을 손쉽게 강점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진주만을 공격하기 위하여 미리 하와이섬으로부터 260mile 떨어진 지점에 2척의 전함, 5척의 항공모함(350대의 비행기), 3척의 순양함, 9척의 구축함, 3척의 잠수함을 진출시켰다.

또한 190대의 각종 비행기를 준비하고 진주만입구에는 공격개시 2일전에 10척의 잠수함을 대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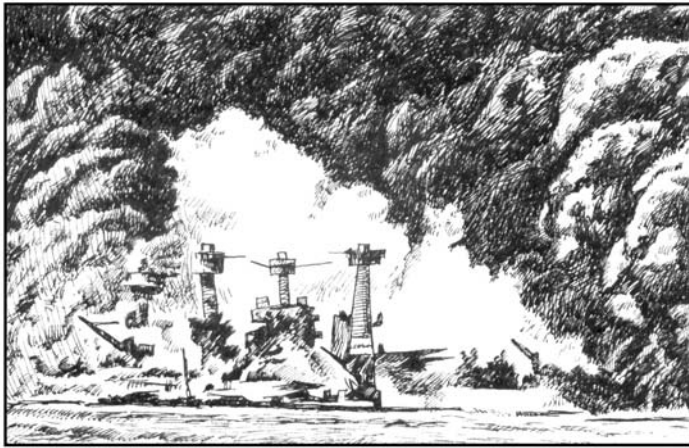
그 당시 진주만에는 96척에 달하는 미제의 각종 군함이 정박해있었다.

일제는 면밀한 준비에 기초하여 1941년 12월 8일 새벽 선전포고도 없이 미태평양함대사령부가 도사리고있는 하와이의 진주만을 불의에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미제는 일제의 불의의 타격을 받아 3척의 순양함을 비롯한 18척의 함선과 100여대의 비행기를 격파당하였다.

이렇게 진주만을 공격한 다음 일제는 다음날에야 라지오를 통하여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날 미국과 영국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일본의 동맹국인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도 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였다.

일제의 진주만공격

일제는 전쟁초기에 차지한 일시적인 우세를 리용하여 홍콩, 웰남, 라오스, 캄보쟈, 타이, 먄마,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등을 손쉽게 강점하고 인디아의 국경에까지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1942년 5월까지 태평양일대와 동남아시아전역을 강점하였다.

2. 일제의 일본군《위안부》만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처럼 전쟁마당에 〈위안부〉까지 끌고다니며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도살한 군대는 세계전쟁사에서 더는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600여만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징용》과 《징병》 등으로 끌어갔다.

그리고 근 20만의 조선녀성들과 중국, 웰남, 라오스, 캄보쟈,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일대의 수많은 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어갔다. 일제는 녀성들을 성노리개로 리용하다 못해 야만적으로 학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범죄를 저질렀다.

일본침략군처럼 전쟁마당에 일본군《위안부》까지 끌고다니며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도살한 군대는 세계전쟁사에서 더는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일본반동정부는 제놈들이 일본군《위안부》정책을 실시한것은 성병에 걸려 허덕이는 일본군의 이른바 《전투사기》를 높이기 위한데 있다고 떠들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일본군《위안부》로 끌어간 조선녀성들을 성노리개로 삼다가 학살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씨도 없이 말살하려는 조선인말살정책의 연장이였다.

일제가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어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중세기적인 《노예사냥》을 방불케 하였다.

일제야수들은《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하면서 조선녀성들을 꾀여가기도 하고 야밤중에 마을에 달려들어 잠자는 처녀들을 잡아가기도 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일제야수들은 들판에서 김매던 처녀들, 물긷던 처녀들, 길가던 처녀들과 밥먹고 있던 처녀들, 지어는 젖먹이어린애가 달린 젊은 녀성들까지 마구 끌어갔다. 때로는 장마당에 트럭을 들이대고 처녀들은 물론 한창 공부할 나어린 소녀들까지도 《위안부》로 끌어갔다.

일제가 근 20만의 조선녀성들과 세계의 수많은 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고다니다가 학살한 만행들은 짐승도 낯을 붉힐 정

도로 야만적인것이였으며 말과 글로 차마 옮기기조차 힘들 정도로 야수적인것이였다.

일제가 감행한 일본군《위안부》범죄는 국제법을 완전히 어긴 위법행위로서 일본반동정부가 우리 인민에게 지난날 저지른 죄과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할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으나 일제는 오늘까지도 과거의 죄악에 대하여 배상은 커녕 인정도,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고있다. 그뿐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새 력사교과서에서까지 력사적사실을 외곡하고있다. 지어 조선녀성들에게 그처럼 모진 학대와 고통을 들씌운 일본군《위안부》범죄문제를 아예 교과서에서 삭제해버리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죄악에 찬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려는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재침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과거죄행을 똑바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정의와 진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의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 악명높은 살인마집단－《731부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는 세균무기를 대대적으로 생산사용하여 아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그것을 담당수행한것이 악명높은 《731부대》였다.

관동군안에 3 000명으로 조직된 이 특수부대는 조선과 중국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 4 000여명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진행하여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관동군헌병대로부터 해마다 수백명의 《죄수》를 넘겨받아 실험대상으로 죽이였다. 지어 굶주린 아이들에게 독균을 넣은 음식물을 주어 온 부락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그 부락을 몽땅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제는 《731부대》의 세균전원흉들을 비밀리에 보호하고 저들의 세균전계획을 실행하는데 리용하였다.

제4절. 테헤란, 크림회담

1. 테헤란회담과 《제2전선》의 형성

쓰딸린그라드전투를 전후로 하여 쏘련의 강경한 제의에 의하여 련합국들간에 제2전선형성문제가 제기되였다.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쏘련과 도이췰란드사이의 전쟁을 될수록 오래 끌어 두 나라를 약화시킨 다음 전후 세계제패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는데로부터 제2전선의 형성을 고의적으로 질질 끌었다. 쏘련의 강경한 요구에 의하여 더는 발뺌을 할수 없게 된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1943년에 제2전선을 형성하겠다는것을 《약속》하지 않을수 없었다.

1943년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제2전선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개시된 후 처음으로 되는 쏘, 미, 영 3개국수뇌자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이 열릴 당시 테헤란은 쏘련과 영국군대가 차지하고있었다. 회담에는 쏘련의 쓰딸린, 미국대통령 루즈벨트, 영국수상인 쳐칠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루즈벨트와 쳐칠은 히틀러도당이 력량을 계속 보존하여 쏘련을 반대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군사작전상 아무런 의의도 없는 발칸반도에 제2전선을 형성할것을 고집하였다.

회담에서는 쓰딸린의 강경한 제의에 의하여 미국, 영국측이 1944년 5월까지 유럽에 도이췰란드를 반대하는 제2전선을 형성한다는것이 결정되였다.

즉 북부프랑스에 미국, 영국련합군이 상륙하여 도이췰란드를 반대하여 지상전을 하게끔 되였다.

회담에서는 이밖에도 쏘련의 대일전쟁참가문제, 전후 도이췰란드의 처리문제가 토의결정되였다.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테헤란회담에서 결정된 날자가 거의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제2전선형성을 계속 태공하였다.

이 시기 쏘련군대는 꾸르스크전투이후 전 전선에서 대규모의 공격을 들이대여 쏘련령토를 파쑈강점자들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였으며 이어서 동유럽나라들을 해방하는 작전에 착수하였다. 조금 있으면 쏘련군대

가 단독으로 파쑈도이췰란드를 완전히 격멸하고 프랑스도 해방할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제2전선을 형성해도 필요없게 되고 전후처리문제에서도 발언권을 가질수 없게 될것이였다.

때문에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늦게라도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저들도 파쑈도이췰란드를 격멸하는데 한몫 하였다는 인상을 조성하려는데로부터 1944년 6월 북부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하였다.

이를 《노르망디상륙작전》이라고 한다.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프랑스에 침입한 후에도 파쑈도이췰란드군을 격멸하는것보다 서유럽나라들에서 장성하고있던 인민들의 반파쑈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쏘련군대는 파쑈도이췰란드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여 1945년 1월 뽈스까를 해방하고 히틀러도당의 소굴인 베를린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준비에 들어갔다.

미, 영제국주의자들이 형성한 《제2전선》은 파쑈도이췰란드를 격멸시키는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2. 크림회담

1945년 정초에 이르러 쏘련군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동유럽의 전체 지역을 해방하였다.

파쑈도이췰란드의 멸망은 시간문제였다.

이리하여 1945년 2월 쏘련의 크림반도 얄따에서 도이췰란드의 전후처리 및 일본과의 전쟁을 마감짓는 문제와 관련하여 2차대전시기 두번째로 되는 쏘, 미, 영 3개국수뇌자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이 회담에는 쏘, 미, 영을 대표하여 쓰딸린, 루즈벨트, 쳐칠이 참가하였다.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회담을 통하여 쏘련의 힘을 빌어 자기들의 유럽침략을 쉽게 실현하며 태평양전쟁에서 적대국인 일본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하였다.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회담을 진행하기 전에 회담에서 쏘련의 주장을 반대하는 《행동통일》을 보장할데 대하여 모의하였다.

회담에서는 먼저 파쑈도이췰란드를 패망시킨 다음 도이췰란드에

쏘, 미, 영 3개국 점령지역을 설정하고 동쪽은 쏘련이, 서쪽은 영국이, 서남쪽은 미국이 각각 차지한다는것을 결정하였다. 베를린도 쏘, 미, 영 3개국의 점령지역으로 나누고 동부베를린은 쏘련이, 서부베를린은 미국과 영국이 차지하기로 하였다. 후에 프랑스까지 포함하여 도이췰란드와 베를린에 대한 4개국 점령구를 설정하였다.

회담에서는 다음으로 치렬한 론쟁끝에 앞으로 도이췰란드가 다시는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파쑈무력과 군수공업을 해체하고 전범자들을 처단하며 모든 파쑈기관들과 파쑈악법들을 페지할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도이췰란드가 전승국들에 입힌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것을 규정하였으나 배상금총액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견상이로 하여 끝내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회담에서는 다음으로 뽈스까의 서부국경을 오데르—나이쎄강계선으로, 동부국경을 케르존선으로 토의결정하였으며 전후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조직으로서 국제련합기구(유엔)를 창설할것을 토의하였다.

회담에서 토의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극비밀리에 진행된 쏘련의 대일참전문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쏘련을 어떻게 하나 대일전쟁에 참가시키고 일본이 태평양전선에 있는 병력을 쏘련군의 공격을 막기 위한데 돌리게 한 다음 자기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영국, 프랑스, 네데를란드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들을 손쉽게 탈취하려고 하였다.

쏘련측은 회담에서 쏘련은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하고있는 조건에서 쏘련이 일본을 공격하자면 쏘련인민을 납득시킬수 있게끔 꾸릴렬도와 남부싸할린을 쏘련에 반환하며 로일전쟁의 결과 로씨야가 일본에 넘겨주었던 리권을 쏘련에 되돌려주게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미제는 쏘련을 대일전쟁에 참가시키자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생기게 된다하더라도 쏘련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한데로부터 쏘련의 제의에 동의하기로 하였다.

회담에서는 유럽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 3개월후에 쏘련이 일제를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한다는것을 재확인하고 그대신 미국, 영국측은 쏘련의 대일전쟁참가와 관련하여 제기한 요구조건에 동의하였다.

제5절. 파쑈도이췰란드의 멸망, 포츠담회담

1. 파쑈도이췰란드의 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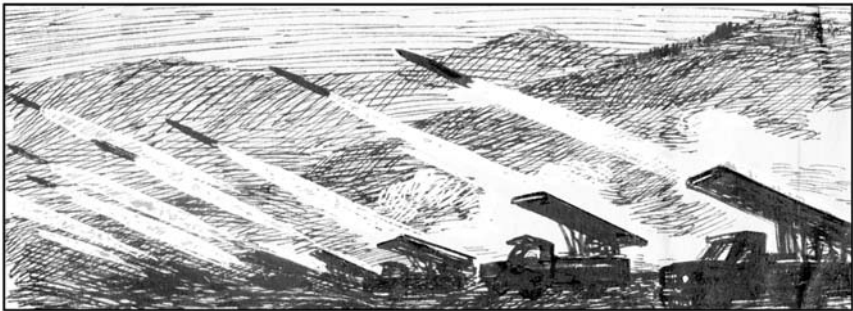
쏘련군대는 1945년 4월에 들어와 파쑈도이췰란드를 최종적으로 격파하기 위하여 히틀러도당의 마지막아성인 베를린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였다.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얼마전에 있은 크림회담의 결정대로 도이췰란드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벌리지 않고 쏘련군대보다 먼저 베를린을 점령하여 될수록 도이췰란드령토를 저들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이때 쏘련군대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4월 7일에는 벌써 베를린으로부터 35km밖에 안되는 가까운 지점에까지 당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침략자는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력사적으로 검증된 하나의 법칙입니다.》

파멸의 위기에 빠진 히틀러도당은 쏘련군대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놈들은 베를린을 방어하려고 100만의 군대와 1 200대의 땅크, 3 300대의 비행기, 8 000문의 각종 포를 배치하였다. 특히 오데르강변으로부터 베를린까지의 구간을 한치의 공간도 없는 완강한 방어지대로 전변시켰다. 파쑈도이췰란드의 이러한 방어상태를 간파한 쏘련군사령부는 베를린작전에 250만의 군대와 8 000대의 비행기, 4 100문의 포, 6 300대의 땅크를 동원하였다.

도이췰란드침략군에게 불벼락을 안기는 쏘련포병들

또한 제1벨라루씨전선군, 제1우크라이나전선군, 제2벨라루씨전선군 등 3개의 전선군이 오데르강과 나이쎄강계선에서 도이췰란드군의 방어진지를 돌파한 다음 3개 전선군이 협동하여 베를린해방작전을 벌릴데 대한 전투계획을 작성하고 총사령관으로 쥬꼬브를 임명하였다.

1945년 4월 16일 쏘련군대는 150개의 강한 탐조등을 적진지에 비치고 포사격과 비행대의 엄호하에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베를린에 집결된 전체 도이췰란드군에 대한 포위를 끝냈다.

네데를란드를 거쳐 도이췰란드 동북부지역에서 베를린에로 신속히 침공하려고 하던 미, 영제국주의군대는 쏘련군대가 베를린을 포위함으로써 자기의 침략계획을 실현할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베를린에로의 진군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4월말 쏘련군대는 베를린에 포위된 도이췰란드군에 대한 총공격에로 넘어갔다. 쏘련군장병들은 승리의 기발을 베를린상공에 휘날리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을 탈취하기 위한 전투를 진행하였다. 의사당에 돌입한 쏘련군용사들은 불붙는 건물에서 매 방, 매 계단을 차지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웠다.

4월 30일 드디여 베를린상공에는 파쑈도이췰란드를 완전히 격멸하고 유럽에서 전쟁의 종결을 온 세상에 알리는 승리의 기발이 나붓겼다.

이날 절망에 빠진 히틀러는 자살하였다.

히틀러가 죽은 다음날 정부는 해군대장이였던 데니스가 장악하였다.

데니스정부는 미, 영제국주의자들과 단독강화조약을 체결할것을 시도하면서 쏘련군대에 계속 저항하였다.

그러나 파쑈도이췰란드의 그 어떠한 흉계도 이미 결정된 제놈들의 운명을 구원할수 없었다. 5월 2일 쏘련군대는 베를린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베를린이 쏘련군대에 의해 해방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니스도당은 미, 영제국주의자들에게만 항복하고 쏘련과는 전쟁을 계속하려고 날뛰였다.

쏘련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1945년 5월 9일 쏘, 미, 영련합국과 도이췰란드간에 파쑈도이췰란드가 무조건 항복한다는 협정

이 조인되였다. 쏘련군대는 베를린작전에서 적병 25만명을 소멸하고 48만명을 포로하였다.

파쑈도이췰란드의 무조건항복으로 유럽에서의 전쟁은 종결되였다.

2. 포츠담회담

유럽에서의 전쟁이 종결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이 가까와옴에 따라 쏘련을 비롯한 전승국들앞에는 도이췰란드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전후처리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쏘련은 전후처리문제를 옳게 하자면 빨리 쏘, 미, 영 3개국수뇌자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때 미국에서는 루즈벨트가 죽고 새로 트루맨이 대통령자리에 앉았다.

1945년 7월 도이췰란드의 베를린부근에 있는 포츠담궁전에서 세번째로 되는 쏘, 미, 영 3개국수뇌자들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이를 《포츠담회담》이라고 한다.

회담에는 쏘, 미, 영수뇌자들인 쓰딸린, 트루맨, 쳐칠이 참가하였다.

회담기간에 있은 영국국회선거에서 쳐칠세력이 패배하여 쳐칠은 본국으로 가고 새로 수상이 된 애틀리가 회담에 계속 참가하였다.

미제는 포츠담회담에서 전후에 제기되는 문제를 세계제패를 위한 저들의 야망에 맞게 처리하기 위하여 원자탄폭발시험을 하고 그것으로 쏘련을 위협해보려고 책동하였다.

트루맨은 회담에 앞서 쓰딸린에게 저들이 원자탄시험에서 성공하였다는것을 갑자기 말하여 그를 놀래움으로써 회담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쓰딸린은 트루맨의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회담장에 들어감으로써 트루맨은 아무런 소득도 보지 못하였다.

회담에서는 쏘련의 원칙적인 립장에 따라 얄따회담에서 채택된 원칙들이 재확인되고 구체화되였다.

회담에서는 우선 전후 도이췰란드를 민주주의적인 평화애호국가로 만들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쏘, 미, 영, 프, 중(장개

석정부) 5개국외무상회의를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 전패국과의 강화조약초안을 작성하는 사업을 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얄따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하였던 도이췰란드의 전쟁배상금문제를 토의하고 배상금총액 200억US$(딸라)중에서 절반은 쏘련이 받기로 결정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뽈스까의 서부국경을 재확인하고 동프로씨아지역을 쏘련과 뽈스까에 돌려준다는것을 결정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쏘련이 대일전쟁에 참가할것이라고 한 얄따회담에서의 합의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쏘련과 미국의 대일군사작전구역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쏘련군은 주로 일본관동군을 상대로 하여 싸우는데 일본의 북단으로부터 조선의 북단에 이르는 38° 선에서 군사행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미, 영, 프 세 나라가 일본에 무조건항복을 권고한 포츠담선언을 채택하였다.

쏘련은 당시 대일전쟁참가국이 아니였으므로 포츠담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제6절. 일본제국주의의 패망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전세계인류의 가장 악독한 원쑤이던 파쑈독일과 이딸리아가 격멸되였으며 동방에서 제국주의일본이 패망하였습니다.》

파쑈도이췰란드가 패망한 후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침략전쟁을 계속하고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권고한 포츠담선언은 1945년 7월 27일에 일본에도 알려졌다. 일본파쑈정부는 그 다음날 신문들을 통하여 포츠담선언내용을 일제히 보도하면서도 파쑈군부의 요구에 따라 선언을 무시하고 항복이 아니라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립장을 밝히였다.

도이췰란드가 항복한 후 3개월이 되여옴에 따라 쏘련이 대일

전쟁에 참가할 날자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었다.

미제는 쏘련이 대일전쟁을 벌리기 전에 저들이 일본을 패망시켰다는 인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였다.

당시 미제는 포츠담회담전야에 원자탄폭발시험을 하고 2개의 원자탄밖에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바로 미제는 이 2개의 원자탄으로 저들의 《강대성》을 《과시》하고 세계인민들을 놀래우려고 하였다.

첫 원자탄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경 인구밀도가 가장 조밀한 히로시마에 투하하였다. 그때 히로시마의 시민들은 마음을 놓고 직장에 출근하였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원자탄이 투하되여 히로시마는 죽음의 도시로 전변되였다.

미제의 귀축같은 만행으로 하여 히로시마시민의 86%에 해당하는 28만여명이 무참히 살해되였고 시안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였다.

미제는 이제 남은 다른 1개의 원자탄을 8월 11일 또다시 일본에 투하할 무서운 흉계를 꾸미였다.

이러한 때인 1945년 8월 8일 쏘련정부는 일제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 대일전쟁에 참가한다는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저들이 일본본토에 아직 발도 들여놓기 전에 조선인민혁명군과 쏘련군대가 일제침략군을 종국적으로 파멸시키리라고 생각하면서 극도의 불안과 초조감에 쌓이게 되였다.

미제는 일본에 또다시 원자탄을 사용함으로써 일제의 패망이 원자탄의 《덕택》이라는 인상을 조성시켜 제놈들의 《위신》을 추켜세우며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미제가 《결정적역할》을 논듯이 행세하려고 하였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미제는 나가사끼에 두번째 원자탄을 투하하여 20만명의 평화적주민을 살해하는 만행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미제가 일본에 원자탄을 떨군것은 일제를 패망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마감짓는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미제의 두번째 원자탄이 투하된 즉시 파쑈일본이 항복을 한것이 아니였다. 오히려 일본의 파쑈군부두목들은《두렵지 않다》고 하

면서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일본파시즘세력을 최종적으로 격멸하고 항복시킨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6월 간백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발표하시였다.

그리고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월 9일 쏘련의 대일선전포고와 때를 같이 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전부대들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적들이《난공불락의 방어선》이라고 떠들던 국경요새들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두만강을 건너 조국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다.

국내에 파견되여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은 광범한 인민들을 무장폭동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다른 부대들은 작전의 보조방향인 백두산동북부와 두만강, 압록강연안일대에서 일제침략군을 격멸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8월 15일 일제관동군 제1방면군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목단강시가 해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방면에서 진격하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작전전반을 지휘하시는 한편 나라의 주요지대들에 락하할 항공륙전대들을 출동시킬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군개시와 함께 쏘련군대도 8월 9일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대일전쟁을 시작하였다.

미제는 일제침략군에 대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으로 하여 전조선이 해방되게 되자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을 가로 막고 남조선만이라도 저들의 강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련합군사령관》의《일반명령 제1호》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미제는 38° 선을 경계로 그 이북은 쏘련군대가, 그 이남은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원한의 분계선인 38° 선이 생겨나게 되였다.

몽골, 중국인민해방군도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총공격에로 넘어갔다.

일제는 드디여 주체34(1945)년 8월 15일 무조건항복을 선언하고 9월 2일 항복서에 조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혁명투쟁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성취되였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6년간 계속된 제2차 세계대전은 전세계 민주력량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제4장. 제2차 세계대전후 민족해방운동의 앙양

제1절.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

1. 제3차 국내혁명전쟁의 시작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중국인민은 하루빨리 국내전쟁을 중지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것을 일치하게 요구하였다.

장개석도당은 중국인민의 강력한 지향에 눌리워 민주주의적통일정부수립을 위한 공산당과의 회담에 응해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40일간의 회담끝에 1945년 10월 10일 국내전쟁을 중지하고 통일적인 민주주의적정부를 세울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를 《쌍십협정》이라고 한다.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장개석도당은 회담의 막뒤에서 인민들의 요구와는 어긋나게 공산당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준비를 다그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장개석도당은 중국동북지방을 차지하려고 로골적으로 획책하고있습니다.》

장개석도당은 미제로부터 비행기, 군함, 땅크들의 지원을 받아 해방지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한편 동북지방에 들어왔던 쏘련군이 철수하자 이 기회를 타서 동북지방을 차지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였다.

미제의 지원밑에 동북지방에 집결된 100여만의 장개석군은 심양, 사평, 장춘, 길림 등 큰 도시들을 덮치고 동북민주련군을 공격하여 포위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키우신 수많은 항일혁명투사들과 우리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중국전선에 파견하시여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장개석군에게 포위당한 동북민주련군을 사지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총포성이 울부짖는 전장이나 다름없는 단동에까지 직접 나가시여 구체적인 방도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무기와 탄약, 군수물자를 지원해주시였다.

이리하여 동북지방에서의 형세는 날을 따라 중국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장개석도당은 1946년 1월 할수없이 정전협정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미제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아 430만의 대병력을 마련한 장개석도당은 1946년 5월 동북지방에서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마침내 제3차 국내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질렀다. 그후 전쟁은 인차 중국관내에로 파급되였다.

2. 인민해방군의 총공격,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국내전쟁을 도발한 장개석도당은 일시적인 군사적우세를 리용하여 몇달동안에 해방지구의 100여개 도시들을 강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선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동북해방작전과 해남도전투에 이르는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가며 전투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조선인민의 국제주의적지원에 무한히 고무된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1947년 여름부터 반공격에로 넘어갔다. 동북지방의 인민해방군은 조선인부대들과 함께 사평해방전투, 료심작전(료양—심양) 등 대전투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동북지방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인민해방군의 다른 부대들은 서주부근에서 또 한차례의 대전투에서 승리하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천진에 대한 포위작전을 벌려 수많은 장개석군을 포로하였다.

장강이북을 완전히 해방한 중국인민해방군은 1949년 4월 100만대군으로 장강을 성과적으로 건너 장개석도당의 마지막지탱점이였던 남경을 해방하고 뒤이어 상해를 점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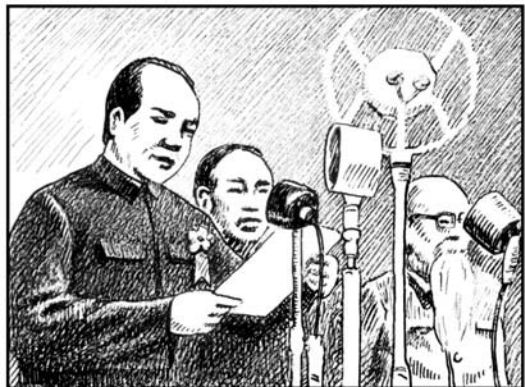
인민해방군의 승리적인 진격에 고무된 적통치지역의 인민들도 장개석도당의 야만적인 통치를 반대하여 도처에서 무장봉기들을 일으켰다.

바빠맞은 장개석도당은 대만으로 도망쳤다.

동북해방작전에서 위훈을 떨친 조선인부대들은 계속해서 중국인민의 해방투쟁을 도와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장강도하작전》과 중국해방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해남도전투》에서 대오의 앞장에 서서 사선과 혈로를 열어나갔다.

중국인민해방군은 1950년 6월현재 장개석군 800만명을 소멸하고 대만과 티베트를 제외한 전국을 해방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선포

제3차 국내전쟁이 승리적으로 끝나가고있던 시기인 1949년 9월에 중국인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창

건하기 위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는 중국공산당을 비롯하여 민주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개별적인 애국인사, 해외교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10월 1일 베이징의 천안문광장에서 모택동을 주석으로, 주은래를 총리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큰 돌파구를 낸것으로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력량관계를 사회주의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킨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또한 중국인민을 력사상 처음으로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제2절. 웰남인민의 반미구국전쟁의 승리, 나라의 통일

1. 미제의 《특수전쟁》도발과 참패

웰남인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1945년 8월혁명을 하고 9월에는 호지명을 수반으로 하는 웰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그리고 일제를 대신하여 웰남에 기여든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고 1954년에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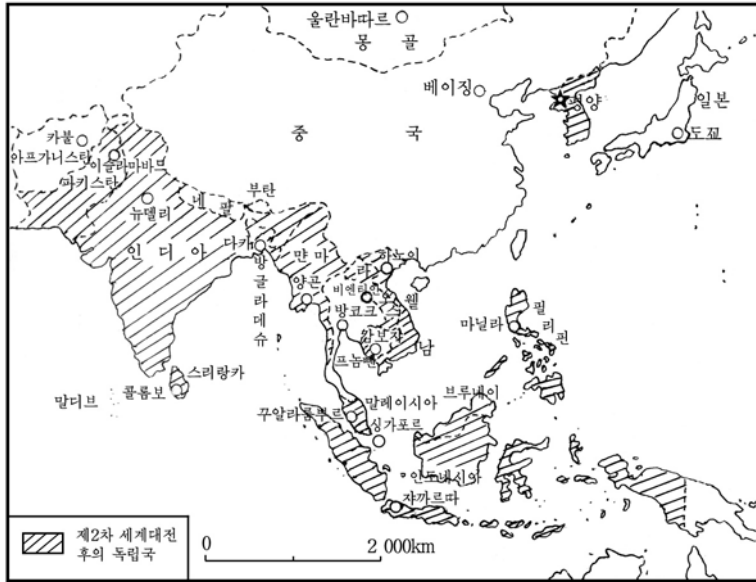
그러나 미제에 의하여 남부웰남에 친미괴뢰정권이 조작됨으로써 나라는 둘로 분렬되고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수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부웰남인민들은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계속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남부웰남인민들은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섰다.

1960년에 웰남민족해방전선이 조직되고 그 이듬해에는 남부웰남민족해방군이 창건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군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적의 병영

제2차 세계대전후 아시아정치지도

과 통치기관들을 공격하여 해방지구를 끊임없이 넓혀나갔다.

그러자 이에 질겁한 미제는 1961년부터 악명높은《특수전쟁계획》을 공포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미제는《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파괴하는》초토화작전에 매여달리면서 농촌마을들을 습격하여 농작물을 불태우고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으며 지어는 대량살륙을 위하여 나팜탄과 유독성화학물질까지 살포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부웰남무장력과 인민들은 적들의 대규모적인 무력공세와 2중3중의 봉쇄속에서도 굴함없이 용감히 싸웠다.

남부웰남민족해방군은 적들의《토벌》작전을 성과적으로 물리치면서도 대규모적인 공격작전을 벌려 해방지구를 더욱 넓혀나갔다.

그리하여 1964년 2월현재 남부웰남령토의 4분의 3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였다.

남부웰남무장력의 투쟁성과에 고무된 강점지역인민들은 미제의《전략촌》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미제는 제놈들이 계획했던《전략촌》을 3분의 1밖에 건설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인민무장대와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70％가 파괴되였다.

적강점지역인민들은 미제의 《전략촌》건설을 반대하면서 괴뢰도당의 류혈적인 폭압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렸다.

남부웰남에서 식민지통치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자 미제는 침략전쟁을 북부웰남에까지 확대하는데서 출로를 찾고 그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음모에 매여달렸다.

2. 《바크보만사건》, 나라의 통일

미제는 1964년에 침략전쟁을 북부웰남에로 확대하기 위한 침략계획인《계단식확대전략》이란것을 내놓고 북부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해냈다.

미제는 미리 꾸며낸 침략계획에 따라 《매독스》호를 비롯한 5척의 구축함을 웰남민주공화국의 령해인 바크보만에 불법침입시켰다.

그리고 공해상에 있던 저들의 배가 갑자기 나타난 북부웰남어뢰정대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생트집을 잡았다.

미제날강도들은 8월 5일에는 북부웰남에 《보복》을 가한다고 하면서 수십대의 공중비적들을 출동시켜 북부웰남의 여러 지역에 기총사격과 폭격을 들이댔다. 이리하여 웰남전쟁은 북부에로까지 번져지게 되였다.

미제공중비적들은 매일과 같이 웰남민주공화국의 주민지대와 공장, 기업소, 농촌, 언제와 관개시설, 병원, 학교, 탁아소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야만적으로 폭격하면서 웰남인민을 굴복시켜보려고 미쳐날뛰였다.

한편 제놈들의 침략군과 《동맹국》무력인 남조선,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의 침략무력을 웰남전쟁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미제에 의하여 침략전쟁이 북부웰남까지 확대되자 웰남인민에 대한 침략은 곧 우리 인민에 대한 침략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은 어느때나 웰남인민의 편에 서서 싸울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렵게 지내더라도 힘자라는껏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전쟁기간 막대한 무상원

조를 제공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이렇듯 극진한 국제주의적지원에 크게 고무된 북과 남의 웰남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을 단호히 분쇄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북부웰남인민들은 로동당의 령도밑에 국내생활을 전시태세로 개편하고 미제의 공중비적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하였다.

로동자, 농민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와 낫을!》이라는 전투적구호를 들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시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싸웠다.

또한 북부웰남인민들은 남부웰남인민들의 반미구국항전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원하였다.

북부웰남인민들의 투쟁에 크게 고무된 남부웰남인민무장력과 인민은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거듭되는 대공세를 용감히 물리치고 1975년 4월 총공격으로 넘어가 호지명시(원래 사이공)를 해방함으로써 남부웰남전지역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이러한 승리에 기초하여 웰남에서는 1976년 4월에 남북총선거가 진행되고 6월에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이 창건되였다.

이리하여 20여년간의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은 승리하고 남북통일의 력사적위업이 실현되였다.

제3절. 꾸바혁명의 승리와 《까리브해위기》

1. 꾸바혁명의 승리

1898년 첫 제국주의전쟁인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 이긴 미제는 에스빠냐로부터 꾸바를 빼앗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꾸바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노예화정책은 1952년 친미분자인 바띠스따가 정변을 일으키고 파쑈독재정권을 세운 이후 더욱 강화되였다.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바띠스따독재정권은 모든 민주주의적요소들을 말살하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략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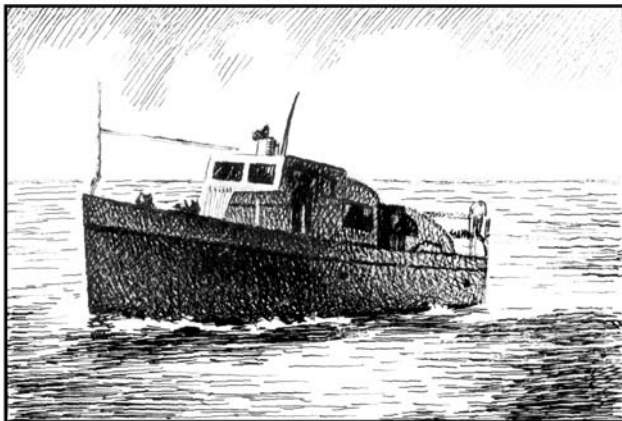
미제와 바띠스따도당의 폭압에 항거하여 꾸바인민들은 무장투쟁에 일떠섰다.

피델 까스뜨로 루쓰를 중심으로 한 애국적청년들은 160여명의 무장부대를 조직하고 몬까다병영에 대한 습격전투를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첫 총성을 울린 다음 이를 무장폭동의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오리엔떼주 싼띠아고에 위치하고있는 몬까다병영은 바띠스따반동군대의 1련대본부이며 당시 꾸바에서 두번째로 큰 요새였다.

1953년 7월 꾸바혁명가들은 몬까다병영에 대한 습격전투를 진행하였으나 준비부족으로 하여 실패하였다. 봉기자들의 대부분은 전투현장에서 죽고 나머지는 체포되여 감옥에 갇히였다.

몬까다병영습격은 실패하였으나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반대하는 꾸바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피델을 비롯한 혁명가들은 감옥안에서도 굴함없이 법정투쟁을 벌리였다. 바띠스따도당은 꾸바혁명가들을 삐노스섬(현재 청년섬)의 모데로감옥에 옮겨가두고 감옥생활을 시키다가 사회적인 석방운동이 강화되는데 겁을 먹고 외국으로 추방해버렸다.

메히꼬에 추방된 봉기자들은 그곳에서 다시 무장부대를 조직하고 조국에로의 원정준비를 갖추어나갔다.

1956년 11월 82명의 꾸바혁명가들은 드디여 《그란마》호를 타고 메히꼬를 떠나 꾸바의 오리엔떼주에 상륙하였다.

《그란마》호

그러나 적들의 매복에 걸려 대부분이 죽고 12명의 혁명가들만이 7자루의 총을 가지고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에 들어가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꾸바혁명가들은 바띠스따도당의 거듭되는 《토벌》을 성과적으로 격파하고 유격근거지를 사수하면서 무장대오를 늘이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무장투쟁은 꾸바인민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시위투쟁이 벌어졌으며 수도의 대학생들은 대통령궁전을 습격하고 해군기지의 해병들은 폭동을 일으켜 바띠스따독재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전국에서 혁명투쟁이 앙양되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봉기군은 1958년 8월부터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총공격에로 이행하였다.

피델이 지휘한 봉기부대는 오리엔떼주와 싼띠아고 데 꾸바에 있는 적들을 치고 체 게바라가 지휘한 봉기군은 바띠스따도당이 도사리고있는 수도 아바나에로의 공격을 진행하였다.

아바나방면군은 적들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던 싼따 클라라시를 해방하고 아바나에 대한 공격전투를 진행하였다. 이때 아바나시민들은 혁명군의 공격에 고무되여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켜 바띠스따독재정권의 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1959년 1월 1일 마침내 수도 아바나가 해방되였다. 독재자 바띠스따는 도미니카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꽁무니를 뺐다. 이리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끝장나고 인민들의 투쟁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미국의 코앞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 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입니다.》

세계반동의 두목인 미제의 코앞에서 인민혁명이 승리함으로써 꾸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의 식민지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이 지역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그후 과떼말라, 꼴롬비아,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꾸바의 모범을 따라 혁명투쟁에 용감히 일떠서게 되였다.

2. 삘라야히론전투와 《까리브해위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꾸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도 물론 성공하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이 자그마한 섬나라에 대한 봉쇄를 위해 막대한 정력을 소비하고있으나 그 노력은 크게 은을 내지 못하고있다.》

꾸바에서 인민혁명이 승리하자 미제는 꾸바혁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이를 요람기에 말살하려고 무력봉쇄와 침공을 감행하였다.

1961년 4월 미제는 약 1 500명의 고용병악당들을 삘라야히론에 침입시켰다.

그러나 꾸바혁명군과 민병들, 전체 꾸바인민들은 결사전에 떨쳐나서 72시간안에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이 전투에서 1 000명이상의 적들을 살상포로하고 많은 무기를 로획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삘라야히론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1962년 10월에는 까리브해해상에서 꾸바에 대한 또 한차례의 침략책동을 감행하였다.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케네디는 국회에서 꾸바에 대한 무력침공계획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고 수많은 침략무력과 군함, 비행기를 동원하여 꾸바에 대한 해상봉쇄를 한 다음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전체 미제침략군부대들에 경계태세를 취할것과 해군병사들의 군대복무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할것을 명령하였으며 꾸바에로 항행하는 모든 선박들이 검색에 응하지 않을 때는 《모조리 격침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10월 23일 미제는 유엔에서 꾸바에 있는 쏘련의《일체 공격용무기》들을 즉시 해체, 철수시킬것과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조사단》을 파견할데 대한 결정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꾸바인민은 혁명정부와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전에 떨쳐나섰다.

미제는 오만하게도 꾸바에 있는 쏘련의 로케트기지들을 파괴할것이라고 위협하였으나 꾸바혁명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자기 나라 령공을 침범하는 미국의 모든 비행기들을 격추할것이라고 단호하게

언명하였다.

이 시기 미제의 군사적압력에 투항한 수정주의자인 흐루쑈브는 미제와 무원칙하게 타협하면서 꾸바에 있는 로케트무기를 철수할것과 공해상에서 미국의 《검색》에 응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흐루쑈브의 투항주의적정책에 따라 쏘련선박들은 꾸바에서 해체한 미싸일을 싣고 미국군함들과 직승기들의 《검색》을 받으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꾸바혁명정부는 미제의 오만한 침략행위와 흐루쑈브도당의 투항주의적배신행위에 대처하여 전쟁상태를 선포한 다음 꾸바혁명군과 전체 인민들이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적들을 맞받아 용감히 싸울것을 호소하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인민들도 꾸바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흐루쑈브도당의 변절행위로 하여 더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된 꾸바인민들을 누구보다 걱정하시며 꾸바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선참으로 지지성원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자 공화국정부성명과 여러 계기를 통해 놈들의 침략책동을 단죄규탄하시였으며 꾸바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어느날에는 꾸바에 가있는 우리 나라 대사에게 꾸바에서 일단 싸움이 일어나면 대사이하 대사관성원들은 물론 가족과 류학생들까지 다 총을 메고 지원병으로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꾸바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해나선 우리 인민의 뜨거운 국제주의적지지성원은 그들의 반미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하기에 그해 12월 우리 나라 주재 꾸바대사는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뵙고 《귀국인민들은 사실상 우리 인민들에게 로케트무기만큼 위력한 원조를 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에 대한 귀국인민들의 지지성원은 정신적인 〈로케트무기〉와 같습니다.》라고 감사의 정에 넘쳐 말씀드리였다.

꾸바인민의 용감한 투쟁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에 기가 꺾인 미제는 한달후에 제놈들의 침략군함들과

비행기들을 걷어가지고 물러가지 않을수 없었다. 이 사건을 《까리브해위기》라고 한다.

그후에도 꾸바인민들은 미제의 계속되는 봉쇄와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오늘도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길을 따라 미제의 반꾸바봉쇄책동을 짓부시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국제주의전사 체 게바라

에르네스또 체 게바라(1928－1967)는 아르헨띠나의 건축가의 가정에서 맏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14살 때에 벌써 애국적청년단체에 들어가 혁명투쟁에 참가하였다. 1953년 의학대학을 졸업한 후부터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혁명활동을 하였다. 처음에는 과떼말라에서, 그후에는 메히꼬에서 피델과 만나 꾸바혁명에 참가하였다. 1956년 《그란마》호 상륙이후 유격근거지창설과 유격전에서 재능있는 지휘관으로서의 명성을 떨치여 꾸바혁명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혁명승리 이후에는 국립은행총재, 공업부장 등 여러 중요직책을 맡아 수행하였으며 대외활동을 통하여 미제의 반꾸바책동을 폭로단죄하였다. 1960년에는 꾸바정부경제대표단 단장으로서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였다. 1965년 4월에 국제주의혁명을 위하여 볼리비아로 간 체 게바라는 여기에서 유격대를 조직하고 친미반동정부군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지휘하였다. 그러다가 1967년 10월 적들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제4절. 인디아의 독립, 인디아－파키스탄분쟁

1. 1946년 2월폭동, 나라의 독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전후에 독립을 주겠다고 한 인디아와의《약속》을 줴버리고 인디아를 그전과 같은 식민지로 남겨둔 다음 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보충하려고 인디아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인디아인민들은 나라의 독립과 자주성을 옹호

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인디아에서 반영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진행된것은 1946년 2월 뭄바이(봄베이)에서 진행된 인디아해병들의 무장폭동이였다.

2월 18일 《탈리베르》호의 인디아해병들은 영국놈들이 모래를 섞은 쌀을 공급한데 항의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이 터지자 뭄바이에 머물고있던 20여척의 상선선원들과 다른 항구의 해병들이 이 폭동에 합류하였다.

해병들은《혁명만세!》, 《영제국주의를 저주한다!》는 구호를 들고 시위에 들어가 영국과 미국기발을 찢어버리고 붉은 기발을 내걸었다.

폭동이 더욱 치렬해지자 해병들은 폭동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폭동진압에 동원된 영국군대와 7시간동안이나 용감히 싸웠다.

이에 호응하여 뭄바이항에 있는 모든 함대의 해병들과 20만명의 뭄바이로동자들이 반영투쟁에 떨쳐나섰다.

로동자들은 광장에 모여 집회를 가진 후 붉은기를 들고 시위에 떨쳐나섰다.

뭄바이시의 학생들과 다른 도시의 로동자들도 투쟁에 나섰다.

해병들의 폭동을 계기로 인디아에서는 전인민적폭동이 일어날수 있는 좋은 정세가 조성되였다.

그러자 극도로 당황한 영국식민지당국은 경찰들을 동원하여 로동자들의 폭동을 총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폭동자들은 여러 지점에 바리케트까지 쌓고 경찰들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1946년 2월폭동은 혁명적당의 옳은 지도를 받지 못하였기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인민들의 반영투쟁이 폭력투쟁으로 발전하자 인디아국민대회당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폭동위원회에 투쟁을 중지하라고 설교해나섰다. 국민대회당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있던 폭동위원회는 국민대회당지도부의 이 지시를 접수하였다.

폭동이 중지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폭동참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2 000여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1946년 2월폭동은 실패하였으나 영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폭동은 영제국주의자들에게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인디아를 통치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나라의 독립을 요구하는 인디아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겁을 먹은 영제국주의자들은 1947년 8월 15일 인디아에 《영련방내의 자치》를 준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인 분렬정책에 따라 인디아에《자치》를 주면서 인디아를 힌두교도들이 많이 사는 인디아와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사는 파키스탄(동, 서파키스탄)으로 갈라놓았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인디아를 두개의 국가로 갈라놓음으로써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간의 종교적인 대립을 조장시켜 민족적의식과 계급적각성을 무디게 하고 제놈들의 신식민지적통치를 유지하려고 꾀하였던것이다.

인디아인민들은 반영투쟁을 계속 벌려 마침내 영제국주의자들을 인디아에서 내쫓고 1950년 1월 26일 인디아공화국을 창건하였다.

2. 인디아－파키스탄분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분렬정책은 반동파들이 세계 도처에서 공통적으로 쓰고있는 상투적수단인것입니다.》

인디아의 분렬은 이 지역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었으며 독립후 새 사회건설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자치》가 선포된 후 판쟈브지방에서만 하여도 인디아와 파키스탄가운데서 어느 나라에 소속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50만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수많은 농촌과 도시들이 파괴되였다. 이리하여 인디아와 파키스탄사이에 여러차례 전쟁이 일어났다.

두 나라들사이의 분쟁에서 기본은 카슈미르문제이다.

카슈미르는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이 같이 살고있는 지

역이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카슈미르의 이러한 종족구성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서로 대립을 조장시켜 싸우게 하려고 하였다. 놈들은 인디아에 대한 《자치》를 선포할 때 카슈미르가 인디아와 파키스탄가운데서 어느 나라에 귀속된다는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두 나라간에는 카슈미르를 어느 나라가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차례 충돌과 분쟁이 일어났다.

인디아와 파키스탄사이의 관계는 동서파키스탄의 분쟁으로 더욱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 12월 파키스탄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총선거에서는 동부파키스탄세력이 승리하였다. 그들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동부파키스탄의 분리를 선포하고 1971년 3월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파키스탄(서부파키스탄)정부는 방글라데슈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진압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파키스탄과 새로 독립을 선포한 방글라데슈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여기에 인디아가 개입하여 1971년부터 전쟁은 다시 인디아와 파키스탄사이의 전쟁으로 확대되였다. 이 전쟁에서도 기본은 카슈미르의 령유권문제였다.

파키스탄은 전쟁에서 이길수 없게 되자 다카시와 북부카슈미르지방의 령토를 잃고 인디아의 정화제의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인디아와 파키스탄은 분쟁을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카슈미르의 령유권문제에 대하여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있다.

제5절. 이란에서의 이슬람교혁명, 미국의 《인질구출작전》

1. 이란에서의 이슬람교혁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9년에 이란에서 회교혁명의 구호밑에 전인민적봉기를 일으켜 황제정권을 무너뜨리고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혁명전 이란에서는 파흐라비황제정권의 가혹한 파쑈테로통치가 실시되고있었다.

파흐라비황제는 오래동안 이란인민의 정신을 지배해온 시아파이슬람교의 리념을 짓밟고 주민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시아파이슬람교도들을 탄압하였다.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략탈로 긁어모은 수백억US$의 자본을 외국은행에 저금하였다.

파흐라비황제는 미제의 중동침략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석유자원을 미제에게 내맡기고 침략적군사쁠럭인 《쎈토》(중앙조약기구)에 들어갔으며 중동에서의 미제의 침략책동에 적극 추종하였다.

이리하여 이란인민의 반미반황제정신은 더욱 높아갔다.

특히 이슬람교신자들속에서 이슬람교의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이 강화되였다.

인민들의 반미반황제투쟁은 1978년 8월 아바단에 있는 어느한 영화관이 불탔을 때 황제가 그 책임을 시아파승려들에게 뒤집어씌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였다.

이란인민들은 나라의 온갖 불행의 근원이 황제에게 있다고 하는 시아파승려들을 지지하여 그들과 함께 황제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당시 파흐라비황제에게 탄압당하여 외국에 망명하여있던 이슬람교지도자 이맘 코메이니는 국내의 종교조직들을 통하여 이란인민의 반황제투쟁을 지도하였다.

1978년 9월부터 이란인민의 반황제투쟁은 전인민적폭동으로 발전하였다. 10월부터 로동계급이 투쟁에 합류하였다. 인민들은 《황제에게 죽음을 주라!》, 《공화국의 수립》, 《미군 나가라!》

라는 구호들을 들고 련일 폭동과 파업, 시위투쟁을 벌리면서 군경들과 치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바빠맞은 파흐라비는 11월 6일 이란군 총참모장을 총리로 하는 군사정권을 수립하고 땅크와 장갑차를 내몰아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러나 파흐라비의 야수적탄압책동은 오히려 인민들의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폭동이 더 크게 확대되게 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파흐라비는 군사정권을 해체하고 《민간정부》를 조직하여 인민들을 얼려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황제가 조직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회유기만술책과 탄압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사태를 수습할수 없게 된 파흐라비는 1월 《병치료》를 구실로 가족들과 함께 외국으로 도망쳤다. 인민들의 폭동은 2월 1일 코메이니가 오랜 기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이란으로 돌아온 후 더욱 고조되였다. 인민들은 황제가 조직한《정부》대신에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족정부수립을 요구하였다.

1979년 2월 폭동에 참가한 대표들로 바자르간을 중심으로 하는 림시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이어 무장을 갖춘 인민들과 애국적군인들은 무장폭동으로 넘어가 륙군사령부와 파흐라비궁전을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황제정권은 전복되고 혁명이 승리하였다.

혁명승리후 이란에서는 군주제도를 청산하고 이슬람공화국을 세울데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였다. 결과 4월 1일 이란이슬람공화국창건이 선포되였다.

2. 미국의 《인질구출작전》과 그 실패

혁명후 이란인민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파괴암해책동 그리고 전복된 반동통치배들의 준동을 물리치면서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섰다. 특히 인민들의 지지밑에 미제와 체결하였던 군사협정을 페기하고 침략적군사동맹인 《쎈토》에서 탈퇴한 다음 쁠럭불가담운동에 가입하였다.

이란정부는 미국에 망명한 파흐라비를 이란에 넘겨줄것을 정식 요구하였다.

이 정당한 요구에 미제가 응하지 않자 이에 격분한 이란대학생들은 1979년 11월 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대사관성원 60여명을 잡아가두었다. 그리고 이란정부는 미국비행기와 선박들이 이란의 령공과 령해에 들어오는것을 금지하고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을 전면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란인민의 이 단호한 조치에 대하여 미제는 군사적위협과 경제적봉쇄조치를 취하고 1980년 4월에 이란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미제는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이란인민을 굴복시킬수 없게 되자 강도적인《인질구출작전》을 벌렸다. 미국대통령 카터가 고안하고 극비밀리에 진행된 《인질구출작전》은 이란에 갇혀있는 미국대사관성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벌린 침략적인 습격사건이다.

그해 4월 25일 미국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제의 대형수송기들, 직승기들이 90여명의 특수군사인원들을 싣고 야밤에 테헤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사막에 착륙하였다. 미국군사인원들은 여기에서 이란에 있는 반혁명악당들의 안내를 받아 미국인《인질》들이 갇혀있는 장소에 침습하여 《인질》들을 구출한 다음 그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막에 내린 비행기들은 서로 충돌하여 여러대가 파괴소각되고 군사인원들이 죽게 되여 작전은 시작초기에 실패하였다.

남은 미국군사인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꽁무니를 뺐다.

제놈들이 그처럼 기대를 걸고있던《인질구출작전》이 실패하자 미제는 할수없이 《인질》문제해결을 위한 이란과의 회담마당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1981년 1월 미제는 이란이 제기한 《인질》석방에 관한 4가지 조건을 승인할데 대한 합의문에 조인하였다. 이에 따라 미제는 암으로 죽은 파흐라비대신에 그가 미국은행에 저금하였던 막대한 자금을 이란정부에 넘겨주고 대사관성원들을 데려가게 되였다.

이리하여 승리한 이란혁명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다시 친미정권을 복구해보려던 미제의 책동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이란인민은 오늘도 이란과 페르샤만지역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제6절.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

1. 《이스라엘국가》의 조작

오래전부터 오스만 뛰르끼예제국의 관할밑에 있던 팔레스티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시기까지 영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남아있었다.

원래 팔레스티나령역에는 카나안족들이 살았는데 이스라엘족이 침입하여 이스라엘국가를 세웠다. B.C. 6세기 바빌로니아에 의해 그 국가가 멸망한 후 그들은 각지에 흩어지게 되였다.

그후 유태인들가운데는 자기들이 살던 팔레스티나에 국가를 다시 세우려는 집단이 나타나게 되였는데 이들을 유태복고주의자라고 하며 유태인국가를 세우기 위한 침략책동을 유태복고주의운동이라고 한다.

오래전부터 전략적요충지이고 석유자원지대인 중동지역에 눈독을 들이고있던 미제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리용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며 아랍인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19세기말부터 팔레스티나에 기여든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수는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의 비호밑에 대대적으로 늘어났다.

미제는 유태인들의 국가를 조작하려는 목적밑에 영제국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팔레스티나에 대한 《위임통치》를 포기하게 한 다음 팔레스티나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갔다.

그리하여 1947년 11월 미제는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티나땅에 아랍인과 유태인의 2개 국가를 수립할데 대한 부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유엔결정에 의하면 팔레스티나인들이 사는 아랍인국가는 1만 1 100km^2, 유태인국가는 1만 4 000km^{2}를 차지하게 하였다.

1948년 5월 유태복고주의자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이른바 《림시정부》를 조작한 다음 《이스라엘공화국》을 조작하였다.

2.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쥐여준 무기로 무장한 2만여명의 이스라엘침략군은 《이스라엘공화국》이 선포된 이후인 1948년 5월 14일 밤 팔레스티나전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터지자 에짚트,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은 팔레스티나아랍인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그 다음날부터 팔레스티나전쟁에 참가하였다.

아랍나라군대들은 에짚트전선과 수리아전선에서 이스라엘침략군과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아랍나라군대들은 미제의 지원을 받아 현대적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침략군의 공격을 막을수 없었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를 제외한 모든 땅을 강점하고 그곳에서 살던 약 100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을 내쫓았다.

이때로부터 팔레스티나인민들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을 벌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무장투쟁은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수호하며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반이스라엘투쟁은 1964년 5월 통일적인 해방투쟁지도기관인《팔레스티나해방조직》(피엘오)이 창건된 후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팔레스티나항쟁투사들은 이스라엘을 타격하는데 유리한 요르단을 투쟁근거지로 삼고 무장투쟁을 준비한 다음 1965년 1월 가자지역에서 무장투쟁의 첫 총성을 울리였다.

1969년 2월 팔레스티나의 30여개의 무장투쟁단체들은 하나로 통합되여 그의 대표들로써 《팔레스티나국민리사회》를 내왔다.

팔레스티나의 항쟁부대들은 제3차 중동전쟁이후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강점된 가자지역과 요르단강서안지역, 골란고원, 시나이반도 등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벌리면서 점차 투쟁범위를 꾸

드스, 텔아비브, 하이파 등지에로 넓혀나갔다.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세차게 진행되는데 겁을 먹은 미제는 요르단지배층을 사촉하여 요르단에 있는《팔레스티나해방조직》지도부가 다른데로 떠날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은 자기의 본부를 요르단으로부터 레바논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제4차 중동전쟁후 에짚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아랍나라들이 분렬된것은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에 더 큰 난관을 조성하고 이스라엘의 침략책동에 좋은 기회를 조성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에짚트가 반이스라엘전선에서 떨어져나간 기회를 리용하여 1982년 6월 남부레바논에 기지를 두고있는 팔레스티나항쟁세력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제5차 중동전쟁을 일으켰다.

수리아, 팔레스티나, 레바논인민들의 반격과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항의규탄에 못이겨 이스라엘침략자들은 그해 6월 《팔레스티나해방조직》과 정전하지 않을수 없었다.

1988년 11월 12일 팔레스티나인민들은 팔레스티나독립국가의 수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것은 팔레스티나인민의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그후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은 가자와 예리코지역에 자치정부(《팔레스티나민족당국》)를 수립하고 뜌니지에 있던 《팔레스티나해방조직》본부를 자치지역에 옮겨왔다.

오늘 팔레스티나인민들은 이러한 투쟁성과에 토대하여 완전독립국가의 창건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제7절. 에짚트에서 1952년 7월혁명, 중동전쟁

1. 1952년 7월혁명과 수에즈운하의 국유화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에짚트에는 형식상 왕국정부가 존재하고있었으나 이는 1936년에 영국과 체결한 불평등적《조약》에 의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영제국주의에 예속되여있었다.

에짚트인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봉건적군주제도를 뒤집어엎으며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왕국정부군대안에서도 정부를 반대하는 운동이 진행되였다. 1948년 팔레스티나전쟁에 참가하였던 나쎄르를 비롯한 정부군대안의 진보적인 중하층장교집단은 전쟁에서 에짚트가 패배하게 되자 그 원인을 왕국정부의 부패무능에서 찾고 군주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반정부적비밀군사조직으로서 《자유장교단》을 무었다.

《자유장교단》은 부패무능한 군사정권을 뒤집어엎고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드디여 1952년 7월에 무장정변을 일으켰다.

폭동군은 순식간에 수도 까히라를 비롯한 에짚트의 주요도시들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되자 국왕은 퇴위를 선포하고 외국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에짚트에서는 오래동안 지배해온 군주제가 무너지게 되였다.

나라의 최고주권은《자유장교단》의 핵심들로 구성된《혁명리사회》에 의하여 장악되였다.

1953년 6월 18일 에짚트에서는 군주제가 페지되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다음에도 인민들앞에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짓부시고 경제문화적락후성을 청산하여야 할 과업이 남아있게 됩니다.》

1952년 7월혁명후 에짚트인민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번

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에짚트정부는 인민들의 지지밑에 1956년 6월 70년이상이나 에짚트를 강점하고있던 영제국주의강점군을 몰아내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그해 7월에는 약 80년간이나 영프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던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하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자유장교단성원들

※ 나쎄르

가말 아브델 나쎄르(1918−1970)는 에짚트의 이전 대통령이다. 일찍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높았던 그는 중학시절에 영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였다가 감옥살이까지 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까히라군사학원을 거쳐 왕실군대 어느 한 려단의 소대장으로 임명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나쎄르는 애국적인 청년장교들로써 《자유장교단》이라는 비밀군사조직을 뭇고 자기의 대렬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는 부패무능한 왕국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1952년 7월 23일 《자유장교단》을 동원하여 정변을 단행한 다음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여 그 다음해에 에짚트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후에는 공화국대통령으로 되여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한 다음 이를 계기로 일어난 제2차 중동전쟁이 승리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1955년 4월 반둥회의에 참가하였으며 그후 쁠럭불가담운동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쳤다. 나쎄르는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고 아랍세계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다가 1970년 9월 급병으로 사망하였다.

2. 중동전쟁(2차-4차)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중동지역에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침략자들에 의하여 5차례의 전쟁이 일어났다.

《팔레스티나전쟁》이라고 하는 제1차 중동전쟁은 1948년 5월에 일어났다.

제2차 중동전쟁은 1956년 10월에 일어났다.

제2차 중동전쟁은 에짚트정부가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한데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영프제국주의자들과 이 기회에 저들의 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으로 하여 일어났다.

10월 30일 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불의에 에짚트국경을 넘어 수에즈운하를 향해 침공해들어왔고 영프제국주의자들은 지중해에서부터 까히라, 수에즈운하와 주민지대들에 야만적인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에짚트의 일부 지역에까지 기여올랐다.

에짚트군대와 인민은 포트사이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달려드는 침략자들과 결사적으로 싸워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다.

여러 아랍나라들도 싸우는 전선에 지원군을 파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에짚트인민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그들의 정의의 위업을 견결히 지지하여주심으로써 에짚트인민을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여주시였다.

침략자들은 에짚트군대와 인민들의 완강한 항전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인민들의 강력한 규탄과 항의에 의하여 에짚트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1956년 11월 6일에 정화가 실시되고 영국, 프랑스 침략군은 에짚트에서 쫓겨나게 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미제의 군사적지원을 받아 또다시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면밀히 준비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에짚트와의 국경지역에 많은 무력을 집결시키고 군사훈련을 하는척 하면서 에짚트를 해이시킨 다음 1967년

6월 불의에 에짚트와 수리아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되였다.

첫 타격에서 항공대를 격파당하고 중요진지들까지 빼앗기게 되자 에짚트는 할수없이 전쟁개시 5일만에 정화에 응하게 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제3차 중동전쟁에서 요르단강서안지역과 시나이반도, 수리아의 골란고원을 강점하였다.

제3차 중동전쟁이후 중동에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세가 조성되였다. 1973년 10월 미제의 부추김과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침략자들에 의하여 중동에서는 4번째로 되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자 에짚트와 수리아군대는 모든 아랍나라들의 지원속에 침략자들에 대한 공격에로 넘어갔다.

10월 14일 시나이반도에서는 에짚트와 이스라엘군의 땅크 2 000여대가 참가한 세계전쟁사상 두번째로 되는 대땅크전이 진행되였다. 전투가 한창 진행될 때 에짚트의 한 익측을 돌파한 이스라엘군땅크들은 수에즈운하를 건너 에짚트령토에까지 침투하였다.

수리아전선에서도 이스라엘침략군은 수리아의 골란고원을 다시 차지하였다.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그를 지원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석유무기》를 사용하였다.

아랍나라들은 석유수입국들인 제국주의자들에게 석유수출을 금지하고 석유값을 대폭 올림으로써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석유위기를 조성하였다.

2차대전후 아프리카정치지도

미제는 어찌나 바빠났던지 계속 령토팽창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정화에 응하지 않으면 제놈들이 이스라엘을 타격하겠다고까지 위협하였다.

1973년 11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에짚트와의 정전협정체결에 응해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수리아는 다음해까지도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계속 싸우다가 1974년 5월 이스라엘과의 병력분리협정에 조인하였다.

제4차 중동전쟁은 아랍나라들이 일치단결하여 싸운다면 그 어떠한 침략자도 능히 물리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오늘도 아랍나라인민들은 강점된 아랍땅을 되찾기 위하여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제8절. 쁠럭불가담운동

1. 쁠럭불가담운동의 발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는 세계도처에 침략적군사동맹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얽매여놓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쏘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저들의 통제와 지배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때문에 두 초대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간의 대립관계가 첨예화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진보적인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

특히 지난날 식민지노예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교활성을 똑똑히 깨달은 발전도상나라들은 다시는 놈들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기 위하여 중립 또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시기인 주체44(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아시아, 아프리카국가대표들의 회의》가 열리였다. 이를 《반둥회의》라고 한다.

회의에서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어느 강국의 특별한 리익》을 위한 집단방위에 참가하지 않을데 대한 요구 즉 쁠럭불가담의 요구가 일치하게 제기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호상 친선과 단결,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규범들이 밝혀졌다.

반둥회의는 신생독립국가들이 새로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쁠럭불가담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은 뜻깊은 회의였다.

반둥회의이후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증대되였다.

주체50(1961)년 9월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드디여 25개 나라의 국가 및 정부수반급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이리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첫 력사적인 진군을 시작하였다.

제1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계기로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투쟁은 쁠럭불가담운동이라는 하나의 조직적인 운동으로 결합되게 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 가장 위력한 반제자주력량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단순히 군사쁠럭만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온 세계를 민주화, 자주화하기 위한 운동이다.

쁠럭불가담운동대렬에는 주로 신흥세력나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있으며 이 운동의 성격은 운동참가국들의 대외활동에서 표현된다.

온 세계를 민주화, 자주화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이 처음

에 군사쁠럭을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였기때문에 이 운동을 쁠럭불가담운동이라고 한다.

※ 인도네시아의 초대대통령 수카르노

수카르노(1901－1970)는 동부쟈와에서 출생하여 민족주의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정치활동을 하였다. 이러한것으로 그는 네데를란드식민지당국에 여러번 체포되여 감옥살이도 하였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인도네시아를 강점하자 일본정부에 환상을 가지고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일제가 패망한 후 그는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고 공화국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수카르노는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다시는 제국주의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중립 또는 쁠럭불가담을 주장하면서 반둥회의소집을 발기하고 주최함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의 발단을 열어놓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신흥세력나라들의 체육경기(가네포)를 발기하고 1961년 9월에는 제1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되였다. 1964년 11월에 수카르노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 이듬해 5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반둥회의 10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세상에 나오게 된 이야기도 이때에 있은 일이다.

수카르노는 1965년 《9월30일사건》이후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였다.

2.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

쁠럭불가담운동은 창건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반제, 자주, 반전평화를 근본리념으로 삼고 자주와 평화,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오늘 이 운동에는 110여개의 발전도상나라들이 망라되여있으며 주체87(1998)년까지 12차례의 수뇌자회의를 가지였다.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는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이 운동의 의장직은 수뇌자회의를

진행한 나라의 정부수반이 다음번 수뇌자회의전까지 맡게 되였다.

우리 나라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쁠럭불가담국가들의 절대적인 지지밑에 주체64(1975)년 8월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국으로 가입한것은 이 운동의 위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국제정치생활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내정간섭,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략탈적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청산하고 새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며 남남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있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자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반제적성격을 거세하고 이 운동을 본래의 궤도에서 탈선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고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 운동의 성격을 고치고 활동방향을 정치문제로부터 경제문제로 돌려야 한다는 그릇된 주장까지 들고나왔다.

그리하여 이 운동발전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이러한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이 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운동의 원칙과 리념을 고수하고 통일단결을 실현하며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가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1(1992)년 5월과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외무상회의와 제10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이 운동을 계속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수

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많은 고전적로작들에서 쁠럭불가담운동과 신흥세력나라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새 사회건설에 일떠선 여러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에게 물심량면의 아낌없는 원조를 보내주시였다.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모시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은 국제문제해결에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하고있다.